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박 영 신[†]

박 영 자

남 인 순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탐구하는데 있다. 더불어 세대 집단별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총 2,460명(청소년 820, 부 820, 모 820)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려움에 대해 청소년은 경제적 문제를, 부모는 의견 차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노부모를 부양할 때 좋은 점으로 청소년은 가정화목을, 부모는 자녀교육에 도움 됨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으로 청소년은 모시고 사는 것, 부모는 보살펴드림의 반응률이 가장 높았다.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청소년과 부모 모두 마음 편하게 해 드림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청소년은 모시고 사는 것을, 부모는 대화함을 많이 응답하였다.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으로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 죄송함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둘째,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 집단이 청소년 집단보다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낮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셋째, 청소년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는 어머니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의 영향을 받았다.

주요어 : 노부모 부양인식, 노부모부양효능감, 노부모 부양태도, 세대차, 토착심리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화로 100
E-mail : yspark@inha.ac.kr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는 노부모 부양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평균수명 증가, 출산율 저하, 가족형태 변화 등 사회변화를 고려해 볼 때 중요하다. 자녀수는 줄어들는데 노부모의 수명은 늘어나고, 그런데다 질병을 앓는 노부모 부양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과거에 대가족 위주의 사회에서 노부모 부양은 당연히 모시고 사는 것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핵가족 사회에서 노부모 부양이란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평균수명 증가로 오래 살게 되었지만 노후 경제적 안정과 건강이 중요하고, 이러한 기본 조건의 충족 없이 오래 살게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다. 노인들의 고독과 우울 및 자살문제가 심각해지고, 노부모 부양의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성인자녀로서는 가정생활만이 아니라 직장생활로 여유가 없는 가운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 많다. 특히 노부모가 치매 등 심신의 질병을 갖게 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노부모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삶의 질이 낮아진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인접 학문의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심리학 분야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탐구는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의미가 있고, 특히 한국인의 가족가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미래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예측과 대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가운데 양육을 받는다면, 부모가 연로해졌을 때는 성장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전통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정생활양식이었다. 노부모부양의 정신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윤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경로효친사상과 가족주의 가치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토대 위에서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는 상호의존적이고, 부모가 연로해졌을 때 부양의무는 효도의 가장 기본이다. 그동안은 노부모 부양이 가정 내에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이제는 다양한 부양방식이 대두되고 급변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인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연구는 시대 변화 속에서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부모 부양인식과 관련 연구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가 1980년에 4.8%였는데, 2010년에 23.9%로 증가하여,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로 되었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에는 27.8%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이다(변미리, 2015). 노인 독신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생활 여건이나, 노인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인식과 부양행동의 변화에 기인할 수도 있다.

중년 성인자녀에게 노부모 부양은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결과가 있다. 서수균, 신현희, 안정신과 정영숙(2015)이 중년 성인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을 분석한 결과, 노부모와 관계, 노부모의 자기관리, 손자녀문제의 세 영역 중에서 노부모와 관계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이 영역에

부양부담(부모의 거취문제, 제사문제, 병간호)이 포함되었다.

노부모 부양부담은 노부모와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애로사항이다. 조성남(2006)이 노부모 부양에 관한 30, 40대 기혼자녀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노부모부양의 우선적인 책임은 가족에 있다는 인식을 지배적으로 하지만, 노부모 가족부양의 부담감이나 부모와 동거시의 애로사항을 인식했다. 노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노부모 가족부양의 어려움을 언급했는데, 세대간 사고방식 차이, 생활패턴 차이, 자녀교육에 대한 노부모의 간섭, 재산상속과 양도 문제가 포함되었다.

부양부담이 가족부양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노부모가 건강이 나빠지면 가족부양자는 큰 고통을 겪기도 한다. 서경현과 천경임(2009)이 치매환자의 가족부양자(며느리, 자녀, 배우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양부담은 우울 및 신체증상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Chun, Knight와 Youn(2007)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한국 거주 한국인과 미국거주 한국 교민 및 미국 거주 백인 가족부양자의 정신건강을 분석했을 때, 부양 부담이 불안과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세 집단 모두 동일하였다. 이는 민족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양부담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중년 부부가 경험하는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은 원가족 특성과의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연지, 조현주와 권정혜(2008)는 부부의 원가족 특성이 고부갈등과 응서갈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즉 남편의 원가족 특성이 장모와 갈등을 매개로,

아내의 원가족 특성이 시어머니와 갈등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생활방식 및 의견 차이는,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중년 성인들은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이 부담만 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점도 있다. 박영신, 김정희와 전성숙(2016)의 연구에서 핵가족과 대가족의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중년 성인은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렵고 힘든 점으로 의견차이 및 경제적 문제를, 노부모 부양할 때 좋은 점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 및 가정화목을 대표적으로 지적했다.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취업주부들에게는 노부모의 돌봄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Igel과 Szydlak(2011)은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노부모가 손자녀와 같이 보내는 삶의 기간이 길어지고, 노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특히 취업주부들에게 직업 영역에서 적극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다.

노부모 부양을 잘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서적 부양에 주목하게 된다. 박영신 등(2016)의 연구에서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마음 편하게 해 드림이 대표적이었다. 마음 편하게 해 드림은 정서적 부양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Abell(2001)은 부양의지척도(Willingness to care scale, WCS)에서 정서적 부양(예: 부모님이 우울해 하시면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도구적 부양(예: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것이다), 신체적 부양(예: 부모님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대소변 처리를 해 드릴 것이다)으로 분류하여 부양의지를 측

정하였다.

노부모 부양과 문화적 가치

노부모 부양인식에서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김민희와 홍주연(2010a)은 객관적 스트레스원이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만, 부양자의 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그리고 맥락적 요인에 따라 부양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스트레스는 달라질 것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부양스트레스 모델에서 맥락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가족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문화적 요인으로 가족주의와 성역할 기대가 포함되었고, 가족요인으로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포함되었다.

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려는 특히 민족집단 간의 가족 부양과 관련된 연구결과의 불일치를 설명하는데 유익하다. Dilworth-Anderson, Goodwin과 Williams(2004)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 부양자의 심리사회적 건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신념과 가치가 도움이 됨을 밝혔다. 가족에 대한 의무와 지원행동에서도 문화차가 확인되어 왔다. Cooney와 Dykstra(2011)가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노부모가 생존해 있고 성인 자녀가 있는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의무와 지원행동을 비교했다. 미국 성인은 네덜란드 성인보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더 강했고, 네덜란드 성인은 미국 성인보다 가족에 대한 지원행동을 더 많이 했다. 네덜란드 성인은 개인적으로 좋아서 가족에 대한 지원행동을 하였고, 미국 성인은 가족에 대한 의무감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차이가 있었다. Daatland, Herlofson과 Lima(2011)의 연구에서 부모로서 책임감은 북서 유럽에

서, 자식의 책임감은 남동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 복지상태가 더욱 선진화되어 있을수록 가족의무에 대한 요구가 완화되었고, 세대간에 더욱 독립적 관계가 허용되었다.

전미에(2006)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을 보살피는 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이에 따른 우울과 같은 정신적 반응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했다. 즉 한국의 가족 간병인이 미국의 한인 가족 간병인에 비해 높은 간병 부담과 우울을 보이는 것은 우울을 경감시켜주는 능동적 적응 대처양식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동 서양 국가 간에 비교를 한 연구들도 있다. 최정혜(2009)가 한국과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와 관계 질을 비교한 결과, 한국 성인자녀가 미국 성인자녀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훨씬 높았으나, 미국 성인자녀가 한국 성인자녀보다 관계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기에서 관계의 질은 노부모에 대해 느끼는 가까움의 정도, 대화정도, 존중정도, 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했다. 국가별로 부모와의 근접성에 따른 관계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미국 성인자녀는 노부모와의 근접성에 따라 관계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 성인자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같은 동네나 같은 도에 사는 경우에 노부모와 관계의 질이 더 높았다. 또한 한국 성인자녀들이 미국 성인자녀들보다 노부모 부양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하위변인별로 보면 경제적 부양행동과 서비스적 부양행동에서는 동일한 패턴이나, 정서적 부양행동은 오히려 미국의 성인자녀들이 더 많이 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Nair(2011)는 동남아시아의 취업여성들이 서양의 취업여성들에 비해 집안일에 대한 의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취업여성들은 노부모를 잘 부양하도록 기대되고, 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 동남아시아 취업여성만이 아니라 한국 취업여성들도 집안일에 대한 많은 의무와 노부모 부양을 잘 하는 것에 대한 압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도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Isengard와 Szydluk(2012)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유럽에서 흔치 않은데 같이 사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 때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부모를 모시는 이유나, 노부모와 함께 살면 좋은 점에 대한 인식으로는 다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부모 부양의 과정에 문화적 가치가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 김정현과 Knight(2009)는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미국 거주 한인 가족부양자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즉 유교주의에 바탕을 둔 문화적 가치를 노인에 대한 존경과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효사상과 가족주의를 묻는 문항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노인복지서비스와 같은 공식적 사회적 지지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부양자가 신체적으로 더욱 건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노부모 부양의식이 경로효친사상과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로효친사상이란 젊은 사람이 노인을 공경하고, 자손은 부모와 조상에 대한 책임과 의

무를 다해 섬긴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인간으로 도리를 지키는 것을 유교에서는 강조한다. 또한 가족주의에서는 가정에서 연륜 있는 어른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화목하고 조화로운 관계와 강한 유대에 기반을 둔 상호협조적 관계를 강조한다. 가족주의 가치는 가족 내 인간관계의 질서 확립을 통해 조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 가족 내의 어른인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자매와 우애를 갖고, 이러한 화목함을 친척관계까지 확대한다(김해란, 김운정, 2011).

가족주의와 같은 문화적 가치는 유교적 전통의 한국에서만 아니라 여러 국가 민족들에게서도 노부모 부양과정에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night, Robinson, Longmire, Chun, Nakao와 Kim(2002)은 치매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대처과정에서 문화적 가치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라틴아메리카인, 한국인과 한국계미국인, 일본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 부양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각 집단에서 가족주의와 같은 문화적 가치는 가족부양 역할을 더욱 잘 수용하고 가족 부양자의 정신건강을 더욱 증진시켰다. 그러나 가족주의와 부양부담의 관계는 민족집단에 따라 일치하지 않았고, 스트레스와는 정적 관계가 있었다.

자식으로서 의무는 한국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노부모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이었다. Paulson과 Bassett(2016)이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 백인이고 일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들을 연구했을 때, 부모와 가까운 애착은 미래 부양자로서의 준비에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자식으로서 의무는 의미있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부모에 대한 강한 애착은 자식으

로서의 의무감을 증진시켰고, 자식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강한 인식은 미래에 부양자로서의 준비도를 높였다. 이러한 경로분석 결과는 자식으로서 강한 의무감이 나중에 노부모 부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 사람들이 갖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나 자식으로서 의무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효도의 의미나 강도와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이고 한국문화는 관계주의 문화(Kim & Park, 2006)라는 토양의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노부모 부양 과정에 작용하고 있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 예로 효 가치관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전통윤리문화에서는 효를 선한 미덕의 으뜸이고 도덕의 근본이며 인륜의 시작(百善之首, 衆德之本, 人倫之始)이라고 봄으로써, 효는 중국 고대 사회에서 모든 대인관계의 정신 기초이고 사회교화와 학교교육의 핵심과 근본이었다(김해란, 김윤정, 2011). 중국 유교정신에 토대한 전통윤리는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효도는 부모자녀관계의 핵심 가치이고, 부모가 연로하게 되었을 때 노부모 부양은 효도 정신의 대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미애(2006)는 가족 간병인(배우자, 며느리, 딸)의 효 가치관과 능동/수동 적응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모형으로 검증했다. 여기에서 효 가치관은 노부모에게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활동(돌보기, 존중, 재정 보조, 말씀 경청, 행복하게 하기, 접촉)에 대한 응답자의 의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효 가치관은 능동적 적응에 정적 영향을, 능동적 적응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간병 부담감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족 간병인이 갖고 있는 효 가치관은 우울을 감소시키고, 간병 부담감은 우울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한 국내의 연구 결과들은 노부모 부양 인식에 대한 시사를 제공한다. 박영신, 김의철과 한기혜(2009)는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에 대해 탐구한 바 있다. 여기에서 밝혀진 효도의 토착심리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부모 세대의 효도 개념이므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성인자녀의 효인식의 뿌리를 볼 수 있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과 이임순(2014)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효도의 구성개념을 탐색한 것으로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청소년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의 심리적 기반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노부모 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김해란과 김윤정(2011)은 중국의 전통적 가족부양가치관을 효와 가족주의로 간주하고, 그러한 가치가 현대로 오면서 중국 내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현대 중국에서는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접촉을 통해 부양하는 경우가 과반수였다. 또한 노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부양스트레스를 낮추지만, 신체적인 부양서비스는 부양스트레스를 높였다. 이러한 사실에 토대하여 김해란과 김윤정(2011)은 중국 사회가 현대로 오면서 효 의식에 변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김해란과 김윤정(2011)은 신체적 수발이나 경제적 부양이 퇴색했지만, 부모 마음을 기쁘고 편안하게 해 주는 정서적 부양으로서 효 의식은 여전히 중요한 부양가치임을 지적했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전통 가치의 변화는 방식이나 표현과 같은 외양의 변화일

뿐, 기본 정신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는 시각이다. Watt, Perera, Ostbye, Ranabahu, Rajapakse와 Maselko(2014)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갈등에 대한 직접적 소통 부족 및 노부모가 경제력이 있어야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경제인식 등이 부각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 가치와 일치하여 성인자녀나 노부모 모두 집에서 모시고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유지되었으며, 그것을 의무와 역할이라고 받아들이는 점에서 변화가 없었다. Bryant와 Lim(2013)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호주의 중국계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효도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의 방법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가정에 따라 다양할 뿐, 효도라는 전통가치는 여전히 노인을 보살피는 정신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세대간 노부모 부양인식의 차이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인식 차이를 밝힌 연구들이 많이 있다(김지연, 도영임, 2014; 정태연, 2001; 황상민, 2000). 박영신과 김의철(2005)에 의하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보다 한국 사회 및 한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많이 했으며, 신뢰 정도가 낮았다. 나은영(2002)이 20대와 40대를 비교한 결과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높은 변화수용성과 규칙회피성향 및 탈물질주의 가치를 나타냄으로써, 세대간 차이가 있었다. 연령집단에 대한 세대 이미지(황상민, 양진영, 2002)에 따르면, 청소년은 신인류 세대, 부모 집단은 민주화세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경제부흥기세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각 세대는 나

름대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박영신 등(2016)은 세대 집단 간에 노부모 부양인식에서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를 제안하였다.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와 유호식(2009)이 청소년과 성인 및 노인의 심리 행동특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세대별로 가치나 역할행동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노부모 부양인식에서 세대간에 다른 양상을 보일 개연성을 시사한다.

성인자녀들의 가족부양과 관련된 인식에 세대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Guberman, Lavoie, Blein과 Olazabal(2012)은 베이비붐 세대 캐나다 성인자녀들이 부양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며, 이러한 지각이 노부모 세대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했다. 성인자녀는 노부모와 달리 자신을 부양자로만 제한하지 않고, 부양자인 동시에 직장가정과 사회참여에서의 역할을 양립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이러한 여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인자녀들은 가족부양을 당연한 책임이라든가 자연스러운 운명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서비스 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가족부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한편 성인자녀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집중하고 노부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부모 부양인식도 점차 약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Fingerman, Pillemer, Silverstein과 Suitor(2012)가 베이비붐 세대 성인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살펴본데, 노부모보다는 자녀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는 것도 둔화되고, 가족 간 유대도 약화되었다. Fingerman, Kim,

Tennant, Birditt와 Zarit(2016)의 연구에서도 미국 중년 성인이 한 주 동안 노부모에게 지원한 정도는 정서적 지원 61%, 조언 61%, 실제적 도움 43%였으나, 자녀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원 80%, 조언 87%, 실제적 도움 69%로 더 많았다. 중년 성인들은 노부모에 대해서는 간헐적인 지원만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빈번한 지원을 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인 정서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 노부모에 대한 지원은 부정적인 정서와 연결되어 있었다. 노부모와 자녀에게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중년 성인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된 Igarashi, Hooker, Coehlo와 Manoogian(201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밝혔다. 중년 성인이 자녀에 대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노부모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을 갖고, 기꺼이 부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모의 영향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정동하(2009)는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인식이 부모-조부모 친밀감의 직접 영향 및 효의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를 통해 간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즉 부모와 조부모의 좋은 관계가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긍정적으로 하고, 효의식이나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부모 부양인식이 긍정적으로 되었다. 부모와 조부모의 좋은 관계가 주는 긍정 모델의 효과이다.

부모의 노부모 부양태도가 자녀에게 세대간 전승을 하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결과가

있다. 이원준과 신성자(2015)는 부모수발에 대한 자녀의 헌신이 동성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세대간에 전승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부모수발에 대한 '규범적 헌신'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만, 부모수발에 대한 '정서적 헌신'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세대간 전승효과가 발견되었다. 여기에서 수발에 대한 정서적 헌신이란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신체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다. 수발에 대한 규범적 헌신은 수발역할의 도리, 의무 및 책임감에 의해 참여하려는 헌신을 의미한다.

노부모 부양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정규형과 박서영(2014)은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노부모, 미취학자녀, 취학자녀 부양부담)이 자기효능감(과업, 대처, 정서 통제)을 매개로 개인의 노후준비정도(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가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하였다. 노부모 부양부담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고,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노후준비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부모 부양부담은 노후준비정도에 직접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성인이 지각하는 노부모 부양부담이 자기효능감 저하에 작용함을 보여준다. 김민희와 홍주연(2010b)이 대학생들의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족주의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또한 관계성이 높을수록 부양의지가 높았다.

노부모 부양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이 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와 이임순(2014)의 연구에서 부모관계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더욱 효도를 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나아가서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와 김태우(2015)는 부모관계효능감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같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이 청소년의 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심리 특성으로 노부모부양효능감을 다루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을 제안한 Bandura(1997)는 효능적 신념과 기술이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변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효능감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종합적인 속성이라기보다, 구체적인 영역별로 다양한 하위 효능감으로 구성된다. 박영신 등(2016)은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효능감 측정을 위해 노부모부양효능감을 제안하고 신뢰도를 구한 결과 양호했다. 나아가서 가족 형태별 중년 성인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핵가족보다 대가족 중년 성인이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더 높고 행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영신 등(2016)은 핵가족보다 대가족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이러한 복잡한 인간관계 상황이 개인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을 성장시키도록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가정환경으로서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세대 전승과 관련된 의미있는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탐구하는데 있다. 더불어 세대 집단별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자 한다.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노부모 부양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과 같은 부양부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노부모 부양이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므로, 노부모 부양의 좋은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이나 부양의 대표적 행동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지각을 하는지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부모 부양인식 탐구에 대한 접근은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탐구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노부모 부양인식에서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었고, 문화 간의 차이를 확인한 실증적 자료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전통가치들이 현재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착심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대차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노부모 부양인식이 청소년과 부모 세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세대간의 차이와 공통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특히 성인 자녀 세대가 노부모 세대와 노부모 부양인식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결과들은, 노부모 부양인식에서의 세대 차이를 검토해 볼 필요를 제시한다. 세대집단별로 노부모 부양인식에서의 특징을 질적으로 탐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의 차이도 분석하고자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검증들이 있어왔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문화적 가치들이 세대전승이 되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분석대상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내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표집했다. 표집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학생 880명(초 205, 중 195, 고 199, 대 281)과 그들의 부모 1,730명으로 총 2,610명이 표집되었다. 그 중에서 학생과 부모가 짝을 이루지 않는 자료는 제외함으로써, 총 2,550명(학생 850, 성인 1,700)의 자료가 선정되었다. 그 중에 30세 이상의 대학원생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부모자료도 함께 제외하여, 총 2,532명(학생 844명,

부모 1,688명)으로 구성되었다. 2,532명의 자료들을 모두 직접 하나씩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자유반응형 문항에 대해 전혀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는 불성실한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분석대상은 표 1과 같다. 초, 중, 고, 대학생 820명과 부모 1,640명으로 구성되어 총 2,460명이었다.

분석대상 중에 학생의 평균 연령은 16.03세(초 11.66, 중 13.40, 고 16.40, 대 22.06), 중앙치는 15세, 최빈치는 13세였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은 상(34.3%), 중(47.6%), 하(18.1%)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분석대상의 약반 정도가 중간 정도의 성취를 하였다. 본인의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은 중류층이 9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류층이 4.4%, 하류층이 4.3%이었다.

부모 집단의 연령은 평균 45.41세(부 46.88, 모 43.94)였다. 연령의 중앙치는 45세, 최빈치는 43세, 범위는 32세~64세로 분포했다. 부모 학력은 고졸이 54.0%(부 47.1, 모 61.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두 번째로 대졸이 37.5%로 많았으며, 대학원졸(4.0%), 중졸(3.2%), 초등졸(1.2%)은 소수였다. 직업은 아버지 경우에 사무/관리직(34.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27.1%), 노동/생산직(18.4%), 고

표 1. 분석대상

구분	전체	학 생					성 인								
		초	중	고	대	계	초 등		중		고		대		계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남	1,225	89	111	101	104	405	205	-	195	-	199	-	221	-	820
여	1,235	116	84	98	117	415	-	205	-	195	-	199	-	221	820
계	2,460	205	195	199	221	820	205	205	195	195	199	199	221	221	1,640

위관리/전문직(17.5%), 무직(2.2%)의 순서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직업 구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전업주부가 45.3%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24.3%), 사무/관리직(12.7%), 노동/생산직(10.8%), 고위관리/전문직(6.9%)의 순서였다. 전체 집단을 보면 다섯 유형의 직업이 고루 분포하였다(무직/전업주부 23.9%, 노동/생산직, 14.6%, 판매/서비스직 25.7%, 사무/관리직 23.7%, 고위관리/전문직 12.2%). 월평균 수입은 427만원이었고, 최빈치는 400만원, 중앙치는 300만원이었다. 가정경제수준에 대해 분석대상의 73.7%가 중간이었으며, 낮은 수준이 17.3%, 높은 수준이 10.0%였다. 사회계층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은 중류층이 8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류층이 10.2%, 상류층이 1.4%로 극히 일부였다.

측정도구

분석을 위한 질문지는 학생용과 부모용 질문지로 제작되었으며, 각각 배경정보와 자유반응형 질문, 양적 분석을 위한 질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용 질문지의 배경정보에 연령을 직접 기록하게 하였으며, 학교급별과 성별, 그리고 본인의 학업성취도 및 사회계층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주어진 답지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노부모 부양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지시문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졌을 때 노부모 모시기에 대한 평소 생각을 한 가지씩 자유롭게 답하도록 했다. 질문은 5개로 구성되었다: 노부모님을 부양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노부모님을 부양하면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노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이 됩니까? 노부모님을 잘 부

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노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행동 등)는 무엇입니까?

양적 분석을 위한 측정변인은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의 2개로 구성되었다. 노부모부양효능감은 박영신 등(2016)이 제작한 6개 문항(예: 당신은 노부모님의 건강을 얼마나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습니까?)을 사용하였다.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도와드릴 수 있는가라는 문항 경우에,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얼마나 잘 도와드릴 수 있는가로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응답자에 부합하는 표현이 되도록 수정했다. 응답은 '전혀 잘 할 수 없다'에서 '매우 잘 할 수 있다'의 5점 척도에 답하도록 제작되었으며, 값이 클수록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부모부양효능감 변인의 Cronbach α 는 .80이었다.

노부모 부양태도는 박영신 등(2016)이 제작한 노부모 부양행동의 3개 문항의 동일 내용을 사용하되, 단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표현으로 수정함으로써,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문항 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노부모님을 잘 부양할 것이다). 지시문도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아져서 노부모가 되셨을 때 얼마나 잘 모실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함으로써, 값이 클수록 노부모 부양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 α 는 .82였다.

부모용 질문지의 배경정보에는 연령과 월평균 수입을 기록하게 했으며, 이외에 학력과 성별, 직업, 가정경제수준 및 사회계층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주어진 답지 중에 선택하도

록 했다.

노부모 부양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대표적인 생각을 한 가지씩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학생용 질문지에서와 동일한 5개 질문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양적 분석을 위해 청소년용과 동일하게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 변인 2개를 포함했다. 노부모부양효능감은 박영신 등(2016)이 제작한 6개 문항을 사용했다. 5점 척도에서 값이 클수록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신뢰도는 .84였다.

노부모 부양태도는 박영신 등(2016)이 제작한 노부모 부양행동의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노부모님을 잘 부양한다). 지시문 및 5점 척도의 답지 모두 동일하였다. 값이 클수록 노부모에 대한 부양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노부모 부양태도 변인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가 .87로서 매우 양호하였다.

실시 및 분석방법

청소년 분석대상의 표집은 초, 중, 고, 대학교의 담임교사와 수업 담당 교수에게 부탁하였다. 수업시간에 협조를 얻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의 실시를 위해서는 질문지를 실시한 분석대상 청소년들에 부모용 질문지를 전달하여, 각자 가정에서 돌아가서 부모용 질문지와 질문지 소개 글을 전달하고, 완성된 질문지는 다시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성실한 응답을 독려하기 위해 응답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하였다.

다섯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부모 부양의식에 대해 자유롭게 반응한 모든 응답

은 그대로 코딩되었다. 동일한 응답들을 묶어서 항목을 만들고, 각각의 항목을 대표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 다음 단계로 유사한 항목 들끼리 묶어서 범주를 만들고, 범주에 대해서도 범주의 개념을 대표하는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과정은 박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개념 틀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질적인 응답을 숫자로 재코딩하여, 이렇게 양화된 자료로 빈도분석이 가능하였다. 빈도 분석은 전체집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집단 각각별로도 진행되고, 더욱 하위의 집단으로 청소년은 초, 중, 고, 대학생의 학교급별로, 부모는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연령대별로도 분석되었다.

질적인 분석에 대한 채점자간 신뢰도는 97.7%(청소년 97.5%, 부모 97.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KAPPA 계수도 .974로(청소년 .973, 부모 .975) 양호하였는데, 두 채점자의 합치도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인 .75(성태제, 2010)를 훨씬 능가하는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연구에서 자유반응들에 대한 질적인 분석 결과는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양적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9.0으로서, 두 측면에서 분석이 진행되었다. 첫째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의 차이는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서의 차이를 t -검증했다. 둘째,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과 부모의 노부모부양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나아가서 청소년의 노부모부양 관련 변인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인식의 특징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인식은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려움, 부양할 때 좋은 점,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 부양의 좋은 방법 인식, 부양의 대표적 행동 인식의 다섯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려움을 분석한 표 2의 전체 결과를 보면, 경제적 문제, 의견 차이가 각각 2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으로 자유롭지 못함, 가족 간 갈등, 건강 문제가 각각 10~20%, 이외에도 보살피드리지 못함, 함께 하는 시간 부족, 힘든 점 없음이 범주로 나타났다.

세대집단별로 보면, 청소년 경우에 경제적 문제(24.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자유롭지 못함, 건강문제의 순서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급별로 보면, 초 중학생은 건강문제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경제적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한 차이가 있다. 노부모 부양의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초, 중, 고, 대학생 집단으로 됨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 문제 범주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항목에 의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외에 생활비 부담, 의료비 부담, 가정형편과 같은 항목이 소수지만 포함되었다.

부모 경우에는 의견차이(26.5%)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경제적 문제도 2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유롭지 못함과 가족 간 갈등의 순서를 보였다. 그러므로 부모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부모는 경제적 문

제보다도 의견 차이에 대한 반응률이 더 높은 점에서 청소년과 차이가 있었다. 의견차이 범주에는 의견차이 항목 및 세대차이 항목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었고, 이외에도 마음 헤아리기, 성격 차이, 생활방식 차이, 의사소통 어려움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표 3은 노부모 부양할 때 좋은 점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가정화목이 30%에 가깝고,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은 20%를 상회하였다. 그 다음으로 10~20% 사이의 응답을 보인 범주는 자식의 도리를 다함, 마음이 편함, 의지가 됨이었다. 이외에 부모님이 도와줌 범주가 포함되었다.

세대집단별로 보면, 청소년은 가정화목이 35.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함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가정화목 범주에는 부모님과 함께 함이라는 항목이 반수 정도를 차지하였고, 이외에도 가정화목, 가족 유대감, 행복함, 가족 사랑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부모는 자녀교육에 도움 됨이 30.8%로 가장 대표적인 범주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화목 범주가 두 번째였다. 자녀교육에 도움 됨 범주에 자녀교육 항목이 가장 대표적인 외에도 예절교육, 인성교육, 자녀에게 모범이 됨, 웃어른 공경, 가정교육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표 4에서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을 보면 전체적으로 죄송함이 54.2%로서 과반수였다. 그 다음으로 마음이 불편함이 10% 이상이었으며, 이외에 마음이 아픔, 걱정됨, 후회됨, 불효함, 편안함의 순서였다. 죄송함 범주에 죄스러움, 죄책감, 미안함 항목이 포함되었다.

세대집단별로 청소년이나 부모 모두 죄송함

표 2.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려움

	전체(%)	청소년(%)					계	부모(%)			
		초	중	고	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1. 경제적 문제	517 (23.3)	28 (15.6)	42 (22.3)	51 (26.3)	65 (31.6)	186 (24.2)	45 (22.2)	214 (22.4)	71 (25.1)	331 (22.8)	
①경제적 어려움	487 (22.0)	22 (12.2)	38 (20.2)	48 (24.7)	64 (31.1)	172 (22.4)	43 (21.2)	201 (21.0)	70 (24.7)	315 (21.7)	
②의료비 부담	11 (.5)	1 (.6)	-	2 (1.0)	-	3 (.4)	1 (.5)	7 (.7)	-	8 (.6)	
③생활비 부담	11 (.5)	4 (2.2)	4 (2.1)	1 (.5)	-	9 (1.2)	-	2 (.2)	-	2 (.1)	
④가정형편	8 (.4)	1 (.6)	-	-	1 (.5)	2 (.3)	1 (.5)	4 (.4)	1 (.4)	6 (.4)	
2. 의견차이	480 (21.6)	21 (11.7)	18 (9.6)	26 (13.4)	31 (15.0)	96 (12.5)	69 (34.0)	251 (26.2)	61 (21.6)	384 (26.5)	
①의견차이	170 (7.7)	5 (2.8)	9 (4.8)	7 (3.6)	15 (7.3)	36 (4.7)	23 (11.3)	89 (9.3)	21 (7.4)	134 (9.2)	
②세대차이	123 (5.5)	1 (.6)	3 (1.6)	6 (3.1)	9 (4.4)	19 (2.5)	20 (9.9)	65 (6.8)	19 (6.7)	104 (7.2)	
③마음 헤아리기	59 (2.7)	8 (4.4)	-	6 (3.1)	2 (1.0)	16 (2.1)	5 (2.5)	28 (2.9)	9 (3.2)	43 (3.0)	
④의사소통 어려움	49 (2.2)	5 (2.8)	4 (2.1)	3 (1.5)	5 (2.4)	17 (2.2)	4 (2.0)	24 (2.5)	4 (1.4)	32 (2.2)	
⑤성격차이	40 (1.8)	1 (.6)	1 (.5)	2 (1.0)	-	4 (.5)	5 (2.5)	26 (2.7)	4 (1.4)	36 (2.5)	
⑥생활방식 차이	39 (1.8)	1 (.6)	1 (.5)	2 (1.0)	-	4 (.5)	12 (5.9)	19 (2.0)	4 (1.4)	35 (2.4)	
3. 자유롭지 못함	323 (14.6)	32 (17.8)	20 (10.6)	41 (21.1)	33 (16.0)	126 (16.4)	25 (12.3)	132 (13.8)	40 (14.1)	197 (13.6)	
①자유롭지 못함	133 (6.0)	8 (4.4)	4 (2.1)	18 (9.3)	14 (6.8)	44 (5.7)	11 (5.4)	60 (6.3)	18 (6.4)	89 (6.1)	
②불편함	61 (2.8)	7 (3.9)	8 (4.3)	6 (3.1)	3 (1.5)	24 (3.1)	4 (2.0)	27 (2.8)	6 (2.1)	37 (2.6)	
③시간 부족	53 (2.4)	6 (3.3)	1 (.5)	6 (3.1)	8 (3.9)	21 (2.7)	3 (1.5)	22 (2.3)	7 (2.5)	32 (2.2)	
④심리적 부담	53 (2.4)	5 (2.8)	4 (2.1)	6 (3.1)	7 (3.4)	22 (2.9)	5 (2.5)	17 (1.8)	9 (3.2)	31 (2.1)	
⑤집안일 증가	23 (1.0)	6 (3.3)	3 (1.6)	5 (2.6)	1 (.5)	15 (2.0)	2 (1.0)	6 (.6)	-	8 (.6)	
4. 가족 간 갈등	278 (12.5)	11 (6.1)	17 (9.0)	30 (15.5)	31 (15.0)	89 (11.6)	23 (11.3)	130 (13.6)	36 (12.7)	189 (13.0)	
①가족 간 갈등	116 (5.2)	6 (3.3)	9 (4.8)	12 (6.2)	11 (5.3)	38 (4.9)	11 (5.4)	55 (5.7)	12 (4.2)	78 (5.4)	
②고부 간 갈등	59 (2.7)	-	-	2 (1.0)	7 (3.4)	9 (1.2)	5 (2.5)	37 (3.9)	8 (2.8)	50 (3.4)	
③배우자와의 갈등	45 (2.0)	1 (.6)	4 (2.1)	8 (4.1)	10 (4.9)	23 (3.0)	3 (1.5)	11 (1.1)	8 (2.8)	22 (1.5)	
④부모님 고집	38 (1.7)	3 (1.7)	3 (1.6)	3 (1.5)	1 (.5)	10 (1.3)	2 (1.0)	19 (2.0)	7 (2.5)	28 (1.9)	
⑤간섭	20 (.9)	1 (.6)	1 (.5)	5 (2.6)	2 (1.0)	9 (1.2)	2 (1.0)	8 (.8)	1 (.4)	11 (.8)	
5. 건강문제	263 (11.9)	37 (20.6)	47 (25.0)	19 (9.8)	18 (8.7)	121 (15.8)	15 (7.4)	96 (10.0)	30 (10.6)	142 (9.8)	
①편찮으심	139 (6.3)	23 (12.8)	24 (12.8)	9 (4.6)	5 (2.4)	61 (7.9)	8 (3.9)	55 (5.7)	14 (4.9)	78 (5.4)	
②부모님의 건강관리	51 (2.3)	6 (3.3)	5 (2.7)	3 (1.5)	4 (1.9)	18 (2.3)	4 (2.0)	22 (2.3)	7 (2.5)	33 (2.3)	
③병간호	45 (2.0)	1 (.6)	6 (3.2)	3 (1.5)	6 (2.9)	16 (2.1)	3 (1.5)	17 (1.8)	9 (3.2)	29 (2.0)	
④치매	28 (1.3)	7 (3.9)	12 (6.4)	4 (2.1)	3 (1.5)	26 (3.4)	-	2 (.2)	-	2 (.1)	
6. 보살펴드리지 못함	131 (5.9)	23 (12.8)	10 (5.3)	8 (4.1)	5 (2.4)	46 (6.0)	11 (5.4)	58 (6.1)	15 (5.3)	85 (5.9)	
①식사 챙기기	48 (2.2)	3 (1.7)	-	2 (1.0)	1 (.5)	6 (.8)	9 (4.4)	28 (2.9)	5 (1.8)	42 (2.9)	
②잘 못헤드림	29 (1.3)	7 (3.9)	2 (1.1)	2 (1.0)	1 (.5)	12 (1.6)	1 (.5)	12 (1.3)	3 (1.1)	17 (1.2)	
③챙겨드리지 못함	28 (1.3)	5 (2.8)	3 (1.6)	3 (1.5)	3 (1.5)	14 (1.8)	1 (.5)	7 (.7)	6 (2.1)	14 (1.0)	
④보살펴드리지 못함	26 (1.2)	8 (4.4)	5 (2.7)	1 (.5)	-	14 (1.8)	-	11 (1.1)	1 (.4)	12 (.8)	
7. 함께하는 시간 부족	101 (4.6)	15 (8.3)	13 (6.9)	5 (2.6)	12 (5.8)	45 (5.9)	5 (2.5)	32 (3.3)	19 (6.7)	56 (3.9)	
①직장생활 때문	62 (2.8)	14 (7.8)	11 (5.9)	1 (.5)	8 (3.9)	34 (4.4)	2 (1.0)	15 (1.6)	11 (3.9)	28 (1.9)	
②거주지가 다름	21 (.9)	-	2 (1.1)	4 (2.1)	-	6 (.8)	3 (1.5)	8 (.8)	4 (1.4)	15 (1.0)	
③함께하는 시간 부족	18 (.8)	1 (.6)	-	-	4 (1.9)	5 (.7)	-	9 (.9)	4 (1.4)	13 (.9)	
8. 힘든 점 없음	92 (4.1)	7 (3.9)	14 (7.4)	11 (5.7)	7 (3.4)	39 (5.1)	10 (4.9)	37 (3.9)	5 (1.8)	53 (3.7)	
9. 기타	33 (1.5)	6 (3.3)	7 (3.7)	3 (1.5)	4 (1.9)	20 (2.6)	-	7 (.7)	6 (2.1)	13 (.9)	
①모름	20 (.9)	3 (1.7)	5 (2.7)	3 (1.5)	4 (1.9)	15 (2.0)	-	4 (.4)	1 (.4)	5 (.3)	
②기타	13 (.6)	3 (1.7)	2 (1.1)	-	-	5 (.7)	-	3 (.3)	5 (1.8)	8 (.6)	
총합계	2218 (100.0)	180 (100.0)	188 (100.0)	194 (100.0)	206 (100.0)	768 (100.0)	203 (100.0)	957 (100.0)	283 (100.0)	1450 (100.0)	

표 3.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할 때 좋은 점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1. 가정화목	679 (29.6)	77 (38.1)	61 (31.9)	75 (38.7)	68 (32.1)	281 (35.2)	48 (22.7)	269 (27.3)	80 (27.0)	398 (26.6)
①부모님과 함께 함	212 (9.2)	40 (19.8)	33 (17.3)	32 (16.5)	32 (15.1)	137 (17.1)	11 (5.2)	55 (5.6)	9 (3.0)	75 (5.0)
②가정화목	212 (9.2)	13 (6.4)	12 (6.3)	28 (14.4)	14 (6.6)	67 (8.4)	16 (7.6)	99 (10.1)	30 (10.1)	145 (9.7)
③가족유대감	89 (3.9)	4 (2.0)	5 (2.6)	8 (4.1)	8 (3.8)	25 (3.1)	6 (2.8)	46 (4.7)	11 (3.7)	64 (4.3)
④가족사랑	78 (3.4)	4 (2.0)	4 (2.1)	4 (2.1)	6 (2.8)	18 (2.3)	8 (3.8)	45 (4.6)	7 (2.4)	60 (4.0)
⑤행복함	56 (2.4)	16 (7.9)	7 (3.7)	2 (1.0)	8 (3.8)	33 (4.1)	4 (1.9)	10 (1.0)	9 (3.0)	23 (1.5)
⑥가족위계질서	32 (1.4)	-	-	1 (.5)	-	1 (.1)	3 (1.4)	14 (1.4)	14 (4.7)	31 (2.1)
2. 자녀교육에 도움 됨	546 (23.8)	17 (8.4)	19 (9.9)	27 (13.9)	22 (10.4)	85 (10.6)	74 (35.1)	302 (30.7)	81 (27.4)	461 (30.8)
①자녀교육	218 (9.5)	3 (1.5)	4 (2.1)	8 (4.1)	8 (3.8)	23 (2.9)	33 (15.6)	123 (12.5)	38 (12.8)	195 (13.0)
②예절교육	103 (4.5)	5 (2.5)	12 (6.3)	12 (6.2)	7 (3.3)	36 (4.5)	14 (6.6)	43 (4.4)	10 (3.4)	67 (4.5)
③인성교육	65 (2.8)	4 (2.0)	2 (1.0)	3 (1.5)	1 (.5)	10 (1.3)	11 (5.2)	36 (3.7)	7 (2.4)	55 (3.7)
④자녀에게 모범이 됨	62 (2.7)	3 (1.5)	1 (.5)	2 (1.0)	1 (.5)	7 (.9)	7 (3.3)	37 (3.8)	10 (3.4)	55 (3.7)
⑤웃어른 공경	61 (2.7)	2 (1.0)	-	1 (.5)	3 (1.4)	6 (.8)	7 (3.3)	36 (3.7)	11 (3.7)	55 (3.7)
⑥가정교육	37 (1.6)	-	-	1 (.5)	2 (.9)	3 (.4)	2 (.9)	27 (2.7)	5 (1.7)	34 (2.3)
3. 지식의 도리를 다함	311 (13.5)	52 (25.7)	49 (25.7)	31 (16.0)	43 (20.3)	175 (21.9)	23 (10.9)	78 (7.9)	35 (11.8)	136 (9.1)
①효도할 수 있음	143 (6.2)	29 (14.4)	27 (14.1)	16 (8.2)	15 (7.1)	87 (10.9)	6 (2.8)	33 (3.4)	17 (5.7)	56 (3.7)
②자식의 도리를 다함	58 (2.5)	1 (.5)	3 (1.6)	6 (3.1)	11 (5.2)	21 (2.6)	9 (4.3)	20 (2.0)	8 (2.7)	37 (2.5)
③건강을 챙겨드림	34 (1.5)	4 (2.0)	3 (1.6)	2 (1.0)	4 (1.9)	13 (1.6)	4 (1.9)	11 (1.1)	6 (2.0)	21 (1.4)
④보살펴드릴 수 있음	29 (1.3)	6 (3.0)	2 (1.0)	3 (1.5)	6 (2.8)	17 (2.1)	3 (1.4)	6 (.6)	3 (1.0)	12 (.8)
⑤부모은혜보답	26 (1.1)	5 (2.5)	8 (4.2)	4 (2.1)	6 (2.8)	23 (2.9)	-	2 (.2)	1 (.3)	3 (.2)
⑥기뻐하심	21 (.9)	7 (3.5)	6 (3.1)	(.0)	1 (.5)	14 (1.8)	1 (.5)	6 (.6)	-	7 (.5)
4. 마음이 편함	310 (13.5)	23 (11.4)	24 (12.6)	20 (10.3)	30 (14.2)	97 (12.1)	24 (11.4)	149 (15.1)	40 (13.5)	213 (14.2)
①마음이 편함	133 (5.8)	13 (6.4)	5 (2.6)	12 (6.2)	9 (4.2)	39 (4.9)	11 (5.2)	65 (6.6)	18 (6.1)	94 (6.3)
②안정감	55 (2.4)	-	1 (.5)	1 (.5)	11 (5.2)	13 (1.6)	3 (1.4)	28 (2.8)	11 (3.7)	42 (2.8)
③걱정 안 됨	42 (1.8)	7 (3.5)	3 (1.6)	4 (2.1)	1 (.5)	15 (1.9)	5 (2.4)	19 (1.9)	3 (1.0)	27 (1.8)
④정서적 안정	35 (1.5)	-	1 (.5)	1 (.5)	7 (3.3)	9 (1.1)	2 (.9)	21 (2.1)	3 (1.0)	26 (1.7)
⑤만족감	34 (1.5)	1 (.5)	9 (4.7)	2 (1.0)	2 (.9)	14 (1.8)	3 (1.4)	13 (1.3)	4 (1.4)	20 (1.3)
⑥주위인정 받음	11 (.5)	2 (1.0)	5 (2.6)	-	-	7 (.9)	-	3 (.3)	1 (.3)	4 (.3)
5. 외지가 됨	272 (11.8)	24 (11.9)	32 (16.8)	24 (12.4)	30 (14.2)	110 (13.8)	13 (6.2)	111 (11.3)	37 (12.5)	162 (10.8)
①의지가 됨	131 (5.7)	15 (7.4)	14 (7.3)	13 (6.7)	14 (6.6)	56 (7.0)	4 (1.9)	50 (5.1)	20 (6.8)	75 (5.0)
②삶의 지혜 배움	91 (4.0)	5 (2.5)	15 (7.9)	8 (4.1)	13 (6.1)	41 (5.1)	3 (1.4)	37 (3.8)	10 (3.4)	50 (3.3)
③든든함	34 (1.5)	3 (1.5)	-	1 (.5)	-	4 (.5)	3 (1.4)	20 (2.0)	7 (2.4)	30 (2.0)
④위로가 됨	16 (.7)	1 (.5)	3 (1.6)	2 (1.0)	3 (1.4)	9 (1.1)	3 (1.4)	4 (.4)	-	7 (.5)
6. 부모님이 도와줌	149 (6.5)	8 (4.0)	5 (2.6)	14 (7.2)	17 (8.0)	44 (5.5)	25 (11.8)	63 (6.4)	17 (5.7)	105 (7.0)
①자녀양육을 도와줌	91 (4.0)	3 (1.5)	4 (2.1)	11 (5.7)	12 (5.7)	30 (3.8)	16 (7.6)	35 (3.6)	10 (3.4)	61 (4.1)
②가사일에 도움 줌	38 (1.7)	5 (2.5)	1 (.5)	1 (.5)	3 (1.4)	10 (1.3)	5 (2.4)	19 (1.9)	4 (1.4)	28 (1.9)
③경제적 혜택	20 (.9)	-	-	2 (1.0)	2 (.9)	4 (.5)	4 (1.9)	9 (.9)	3 (1.0)	16 (1.1)
7. 기타	29 (1.3)	1 (.5)	1 (.5)	3 (1.5)	2 (.9)	7 (.9)	4 (1.9)	12 (1.2)	6 (2.0)	22 (1.5)
①없음	15 (.7)	1 (.5)	1 (.5)	2 (1.0)	-	4 (.5)	2 (.9)	6 (.6)	3 (1.0)	11 (.7)
②모름	10 (.4)	-	-	1 (.5)	2 (.9)	3 (.4)	1 (.5)	3 (.3)	3 (1.0)	7 (.5)
③기타	4 (.2)	-	-	-	-	-	1 (.5)	3 (.3)	-	4 (.3)
총합계	2296 (100.0)	202 (100.0)	191 (100.0)	194 (100.0)	212 (100.0)	799 (100.0)	211 (100.0)	984 (100.0)	296 (100.0)	1497 (100.0)

표 4.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1. 죄송함	1226 (54.2)	76 (37.4)	104 (54.2)	112 (57.1)	129 (63.2)	421 (53.0)	103 (50.0)	534 (55.4)	167 (57.0)	805 (54.8)
①죄송함	632 (27.9)	51 (25.1)	52 (27.1)	61 (31.1)	66 (32.4)	230 (28.9)	60 (29.1)	270 (28.0)	72 (24.6)	402 (27.4)
②죄스러움	218 (9.6)	4 (2.0)	4 (2.1)	6 (3.1)	13 (6.4)	27 (3.4)	24 (11.7)	121 (12.6)	45 (15.4)	191 (13.0)
③죄책감	197 (8.7)	8 (3.9)	22 (11.5)	27 (13.8)	40 (19.6)	97 (12.2)	4 (1.9)	71 (7.4)	25 (8.5)	100 (6.8)
④미안함	179 (7.9)	13 (6.4)	26 (13.5)	18 (9.2)	10 (4.9)	67 (8.4)	15 (7.3)	72 (7.5)	25 (8.5)	112 (7.6)
2. 마음이 불편함	310 (13.7)	31 (15.3)	20 (10.4)	27 (13.8)	24 (11.8)	102 (12.8)	26 (12.6)	140 (14.5)	41 (14.0)	208 (14.2)
①마음이 불편함	193 (8.5)	16 (7.9)	7 (3.6)	20 (10.2)	17 (8.3)	60 (7.5)	17 (8.3)	88 (9.1)	28 (9.6)	133 (9.1)
②마음이 무거움	94 (4.2)	6 (3.0)	6 (3.1)	3 (1.5)	6 (2.9)	21 (2.6)	9 (4.4)	50 (5.2)	13 (4.4)	73 (5.0)
③찜찜함	23 (1.0)	9 (4.4)	7 (3.6)	4 (2.0)	1 (0.5)	21 (2.6)	-	2 (0.2)	-	2 (0.1)
3. 마음이 아픔	191 (8.4)	38 (18.7)	24 (12.5)	11 (5.6)	7 (3.4)	80 (10.1)	22 (10.7)	65 (6.7)	23 (7.8)	111 (7.6)
①마음이 아픔	76 (3.4)	8 (3.9)	3 (1.6)	2 (1.0)	2 (1.0)	15 (1.9)	12 (5.8)	35 (3.6)	13 (4.4)	61 (4.2)
②안타까움	67 (3.0)	13 (6.4)	9 (4.7)	4 (2.0)	4 (2.0)	30 (3.8)	8 (3.9)	21 (2.2)	8 (2.7)	37 (2.5)
③슬픔	48 (2.1)	17 (8.4)	12 (6.3)	5 (2.6)	1 (0.5)	35 (4.4)	2 (1.0)	9 (0.9)	2 (0.7)	13 (0.9)
4. 걱정됨	186 (8.2)	24 (11.8)	14 (7.3)	19 (9.7)	15 (7.4)	72 (9.1)	27 (13.1)	77 (8.0)	10 (3.4)	114 (7.8)
①걱정됨	129 (5.7)	16 (7.9)	10 (5.2)	8 (4.1)	10 (4.9)	44 (5.5)	22 (10.7)	59 (6.1)	4 (1.4)	85 (5.8)
②불안함	57 (2.5)	8 (3.9)	4 (2.1)	11 (5.6)	5 (2.5)	28 (3.5)	5 (2.4)	18 (1.9)	6 (2.0)	29 (2.0)
5. 후회됨	121 (5.3)	19 (9.4)	17 (8.9)	7 (3.6)	4 (2.0)	47 (5.9)	6 (2.9)	50 (5.2)	17 (5.8)	74 (5.0)
①허전함	60 (2.7)	13 (6.4)	12 (6.3)	5 (2.6)	1 (0.5)	31 (3.9)	2 (1.0)	23 (2.4)	3 (1.0)	29 (2.0)
②피로움	34 (1.5)	2 (1.0)	2 (1.0)	-	2 (1.0)	6 (0.8)	2 (1.0)	17 (1.8)	9 (3.1)	28 (1.9)
③후회됨	27 (1.2)	4 (2.0)	3 (1.6)	2 (1.0)	1 (0.5)	10 (1.3)	2 (1.0)	10 (1.0)	5 (1.7)	17 (1.2)
6. 불효함	109 (4.8)	9 (4.4)	8 (4.2)	6 (3.1)	11 (5.4)	34 (4.3)	12 (5.8)	41 (4.3)	22 (7.5)	75 (5.1)
7. 편안함	50 (2.2)	2 (1.0)	4 (2.1)	8 (4.1)	7 (3.4)	21 (2.6)	-	23 (2.4)	6 (2.0)	29 (2.0)
①편안함	40 (1.8)	-	2 (1.0)	7 (3.6)	7 (3.4)	16 (2.0)	-	19 (2.0)	5 (1.7)	24 (1.6)
②그냥 그렇다	10 (0.4)	2 (1.0)	2 (1.0)	1 (0.5)	-	5 (0.6)	-	4 (0.4)	1 (0.3)	5 (0.3)
8. 기타	71 (3.1)	4 (2.0)	1 (0.5)	6 (3.1)	7 (3.4)	18 (2.3)	10 (4.9)	34 (3.5)	7 (2.4)	53 (3.6)
①생각해보지 않음	32 (1.4)	-	1 (0.5)	3 (1.5)	4 (2.0)	8 (1.0)	4 (1.9)	16 (1.7)	4 (1.4)	24 (1.6)
②부양의지 기쁨	29 (1.3)	4 (2.0)	-	3 (1.5)	1 (0.5)	8 (1.0)	6 (2.9)	13 (1.3)	2 (0.7)	21 (1.4)
③기타	10 (0.4)	-	-	-	2 (1.0)	2 (0.3)	-	5 (0.5)	1 (0.3)	8 (0.5)
총합계	2264 (100.0)	203 (100.0)	192 (100.0)	196 (100.0)	204 (100.0)	795 (100.0)	206 (100.0)	964 (100.0)	293 (100.0)	1469 (100.0)

범주가 과반수인 점에서 일치했다. 부모와 청소년은 죄송함 다음 범주들이 거의 비슷한 순서를 보였으나, 걱정됨 범주의 비율이 마음이 아픔 범주보다 약간 더 많은 비율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과 부모 각각 편안함

범주가 2.6% 2.0%로 나타남으로써,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정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덩덤한 마음으로 그저 그렇다는 경우도 일부이상이 있었다.

표 5.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 인식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1. 마음 편하게 해드림	757 (32.7)	64 (32.0)	43 (22.6)	52 (26.7)	41 (19.3)	200 (25.1)	94 (44.8)	361 (36.3)	98 (32.1)	557 (36.7)
①마음 편하게 해드림	325 (14.0)	12 (6.0)	11 (5.8)	10 (5.1)	13 (6.1)	46 (5.8)	41 (19.5)	191 (19.2)	46 (15.1)	279 (18.4)
②편하게 해드림	175 (7.6)	28 (14.0)	21 (11.1)	17 (8.7)	12 (5.7)	78 (9.8)	23 (11.0)	53 (5.3)	21 (6.9)	97 (6.4)
③원하는 것 해드림	87 (3.8)	15 (7.5)	8 (4.2)	13 (6.7)	7 (3.3)	43 (5.4)	9 (4.3)	27 (2.7)	7 (2.3)	44 (2.9)
④이해해드림	84 (3.6)	6 (3.0)	-	4 (2.1)	2 (.9)	12 (1.5)	11 (5.2)	49 (4.9)	12 (3.9)	72 (4.7)
⑤가정회복	69 (3.0)	2 (1.0)	3 (1.6)	6 (3.1)	7 (3.3)	18 (2.3)	9 (4.3)	33 (3.3)	7 (2.3)	51 (3.4)
⑥의견존중	17 (.7)	1 (.5)	-	2 (1.0)	-	3 (.4)	1 (.5)	8 (.8)	5 (1.6)	14 (.9)
2. 모시고 사는 것	350 (15.1)	27 (13.5)	52 (27.4)	52 (26.7)	53 (25.0)	184 (23.1)	7 (3.3)	114 (11.5)	44 (14.4)	166 (10.9)
3. 대화함	344 (14.9)	12 (6.0)	9 (4.7)	14 (7.2)	21 (9.9)	56 (7.0)	42 (20.0)	188 (18.9)	56 (18.4)	288 (19.0)
①대화함	263 (11.4)	6 (3.0)	5 (2.6)	10 (5.1)	19 (9.0)	40 (5.0)	36 (17.1)	146 (14.7)	40 (13.1)	223 (14.7)
②말동무	38 (1.6)	4 (2.0)	3 (1.6)	2 (1.0)	-	9 (1.1)	3 (1.4)	18 (1.8)	7 (2.3)	29 (1.9)
③안부 전화	29 (1.3)	1 (.5)	1 (.5)	1 (.5)	-	3 (.4)	2 (1.0)	18 (1.8)	6 (2.0)	26 (1.7)
④자주 연락함	14 (.6)	1 (.5)	-	1 (.5)	2 (.9)	4 (.5)	1 (.5)	6 (.6)	3 (1.0)	10 (.7)
4. 보살펴드림	248 (10.7)	31 (15.5)	35 (18.4)	26 (13.3)	23 (10.8)	115 (14.4)	16 (7.6)	87 (8.7)	29 (9.5)	133 (8.8)
①관심 가짐	76 (3.3)	3 (1.5)	9 (4.7)	11 (5.6)	13 (6.1)	36 (4.5)	3 (1.4)	27 (2.7)	10 (3.3)	40 (2.6)
②보살펴드림	66 (2.9)	16 (8.0)	10 (5.3)	6 (3.1)	2 (.9)	34 (4.3)	4 (1.9)	21 (2.1)	7 (2.3)	32 (2.1)
③정성껏 모심	60 (2.6)	6 (3.0)	12 (6.3)	6 (3.1)	4 (1.9)	28 (3.5)	5 (2.4)	23 (2.3)	4 (1.3)	32 (2.1)
④건강 챙겨드림	46 (2.0)	6 (3.0)	4 (2.1)	3 (1.5)	4 (1.9)	17 (2.1)	4 (1.9)	16 (1.6)	8 (2.6)	29 (1.9)
5. 자주 찾아뵈	170 (7.3)	12 (6.0)	6 (3.2)	12 (6.2)	18 (8.5)	48 (6.0)	12 (5.7)	84 (8.4)	26 (8.5)	122 (8.0)
①가까운 곳에 거주	87 (3.8)	4 (2.0)	3 (1.6)	7 (3.6)	15 (7.1)	29 (3.6)	9 (4.3)	40 (4.0)	9 (3.0)	58 (3.8)
②자주 찾아뵈	83 (3.6)	8 (4.0)	3 (1.6)	5 (2.6)	3 (1.4)	19 (2.4)	3 (1.4)	44 (4.4)	17 (5.6)	64 (4.2)
6. 순종함	161 (7.0)	31 (15.5)	25 (13.2)	10 (5.1)	4 (1.9)	70 (8.8)	10 (4.8)	63 (6.3)	18 (5.9)	91 (6.0)
①효도함	74 (3.2)	24 (12.0)	20 (10.5)	4 (2.1)	3 (1.4)	51 (6.4)	4 (1.9)	18 (1.8)	1 (.3)	23 (1.5)
②순종함	50 (2.2)	6 (3.0)	1 (.5)	1 (.5)	-	8 (1.0)	3 (1.4)	31 (3.1)	8 (2.6)	42 (2.8)
③부모공경	37 (1.6)	1 (.5)	4 (2.1)	5 (2.6)	1 (.5)	11 (1.4)	3 (1.4)	14 (1.4)	9 (3.0)	26 (1.7)
7. 경제적 지원	137 (5.9)	11 (5.5)	6 (3.2)	12 (6.2)	35 (16.5)	64 (8.0)	17 (8.1)	39 (3.9)	17 (5.6)	73 (4.8)
①경제적 지원	85 (3.7)	7 (3.5)	3 (1.6)	8 (4.1)	26 (12.3)	44 (5.5)	9 (4.3)	21 (2.1)	11 (3.6)	41 (2.7)
②용돈 드림	46 (2.0)	3 (1.5)	3 (1.6)	-	8 (3.8)	14 (1.8)	8 (3.8)	18 (1.8)	6 (2.0)	32 (2.1)
③여행 보내드림	6 (.3)	1 (.5)	-	4 (2.1)	1 (.5)	6 (.8)	-	-	-	-
8. 함께 시간 보냄	98 (4.2)	12 (6.0)	12 (6.3)	10 (5.1)	13 (6.1)	47 (5.9)	7 (3.3)	33 (3.3)	11 (3.6)	51 (3.4)
9. 기타	50 (2.2)	-	2 (1.1)	7 (3.6)	4 (1.9)	13 (1.6)	5 (2.4)	26 (2.6)	6 (2.0)	37 (2.4)
①간섭 없음	13 (.6)	-	1 (.5)	3 (1.5)	-	4 (.5)	2 (1.0)	7 (.7)	-	9 (.6)
②모름	13 (.6)	-	-	2 (1.0)	2 (.9)	4 (.5)	1 (.5)	7 (.7)	1 (.3)	9 (.6)
③요양시설 이용	11 (.5)	-	-	1 (.5)	1 (.5)	2 (.3)	1 (.5)	5 (.5)	3 (1.0)	9 (.6)
④기타	13 (.6)	-	1 (.5)	1 (.5)	1 (.5)	3 (.4)	1 (.5)	7 (.7)	2 (.7)	10 (.7)
총합계	2315 (100.0)	200 (100.0)	190 (100.0)	195 (100.0)	212 (100.0)	797 (100.0)	210 (100.0)	995 (100.0)	305 (100.0)	1518 (100.0)

표 6.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 인식

	전체(%)	청소년(%)					계	부모(%)				계
		초	중	고	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 모시고 사는 것	394 (19.0)	35 (18.6)	44 (23.7)	77 (39.7)	70 (33.3)	226 (29.0)	15 (8.6)	110 (12.9)	42 (16.0)	168 (13.0)		
2. 보살펴드림	348 (16.8)	55 (29.3)	35 (18.8)	28 (14.4)	28 (13.3)	146 (18.8)	23 (13.2)	134 (15.7)	42 (16.0)	202 (15.6)		
①보살펴드림	85 (4.1)	11 (5.9)	8 (4.3)	9 (4.6)	4 (1.9)	32 (4.1)	3 (1.7)	39 (4.6)	9 (3.4)	53 (4.1)		
②건강관리	80 (3.9)	4 (2.1)	4 (2.2)	4 (2.1)	10 (4.8)	22 (2.8)	7 (4.0)	36 (4.2)	15 (5.7)	58 (4.5)		
③식사 챙김	60 (2.9)	7 (3.7)	4 (2.2)	6 (3.1)	4 (1.9)	21 (2.7)	7 (4.0)	24 (2.8)	8 (3.1)	39 (3.0)		
④안마함	39 (1.9)	17 (9.0)	8 (4.3)	4 (2.1)	2 (1.0)	31 (4.0)	1 (.6)	7 (.8)	-	8 (.6)		
⑤도와드림	33 (1.6)	12 (6.4)	5 (2.7)	1 (.5)	2 (1.0)	20 (2.6)	1 (.6)	9 (1.1)	3 (1.1)	13 (1.0)		
⑥관심 가짐	26 (1.3)	-	5 (2.7)	2 (1.0)	1 (.5)	8 (1.0)	1 (.6)	12 (1.4)	4 (1.5)	18 (1.4)		
⑦병간호	25 (1.2)	4 (2.1)	1 (.5)	2 (1.0)	5 (2.4)	12 (1.5)	3 (1.7)	7 (.8)	3 (1.1)	13 (1.0)		
3. 순종함	260 (12.5)	34 (18.1)	25 (13.4)	8 (4.1)	4 (1.9)	71 (9.1)	23 (13.2)	131 (15.4)	34 (13.0)	189 (14.6)		
①효도함	99 (4.8)	23 (12.2)	17 (9.1)	5 (2.6)	1 (.5)	46 (5.9)	7 (4.0)	40 (4.7)	6 (2.3)	53 (4.1)		
②예의바른 행동	93 (4.5)	9 (4.8)	5 (2.7)	1 (.5)	2 (1.0)	17 (2.2)	13 (7.5)	49 (5.8)	14 (5.3)	76 (5.9)		
③어른 공경	43 (2.1)	2 (1.1)	-	2 (1.0)	1 (.5)	5 (.6)	3 (1.7)	25 (2.9)	10 (3.8)	38 (2.9)		
④순종함	13 (.6)	-	3 (1.6)	-	-	3 (.4)	-	8 (.9)	1 (.4)	10 (.8)		
⑤자식의 도리를 다함	12 (.6)	-	-	-	-	-	-	9 (1.1)	3 (1.1)	12 (.9)		
4. 경제적 지원	215 (10.4)	14 (7.4)	23 (12.4)	19 (9.8)	34 (16.2)	90 (11.6)	15 (8.6)	82 (9.6)	28 (10.7)	125 (9.7)		
①용돈 드림	95 (4.6)	5 (2.7)	7 (3.8)	9 (4.6)	15 (7.1)	36 (4.6)	4 (2.3)	40 (4.7)	15 (5.7)	59 (4.6)		
②경제적 지원	80 (3.9)	4 (2.1)	12 (6.5)	6 (3.1)	14 (6.7)	36 (4.6)	6 (3.4)	29 (3.4)	9 (3.4)	44 (3.4)		
③여행 보내드림	30 (1.4)	3 (1.6)	4 (2.2)	4 (2.1)	5 (2.4)	16 (2.1)	4 (2.3)	6 (.7)	4 (1.5)	14 (1.1)		
④생활비 지원	10 (.5)	2 (1.1)	-	-	-	2 (.3)	1 (.6)	7 (.8)	-	8 (.6)		
5. 함께 시간 보냄	198 (9.6)	10 (5.3)	10 (5.4)	21 (10.8)	24 (11.4)	65 (8.4)	31 (17.8)	76 (8.9)	26 (9.9)	133 (10.3)		
①함께 시간 보냄	137 (6.6)	5 (2.7)	7 (3.8)	9 (4.6)	17 (8.1)	38 (4.9)	28 (16.1)	50 (5.9)	21 (8.0)	99 (7.7)		
②동반여행	45 (2.2)	4 (2.1)	2 (1.1)	11 (5.7)	7 (3.3)	24 (3.1)	3 (1.7)	14 (1.6)	4 (1.5)	21 (1.6)		
③기념일 챙겨드림	16 (.8)	1 (.5)	1 (.5)	1 (.5)	-	3 (.4)	-	12 (1.4)	1 (.4)	13 (1.0)		
6. 마음 편하게 헤드림	193 (9.3)	20 (10.6)	22 (11.8)	10 (5.2)	5 (2.4)	57 (7.3)	24 (13.8)	84 (9.9)	27 (10.3)	136 (10.5)		
①마음 편하게 헤드림	69 (3.3)	6 (3.2)	9 (4.8)	5 (2.6)	2 (1.0)	22 (2.8)	7 (4.0)	30 (3.5)	9 (3.4)	47 (3.6)		
②가정화목	39 (1.9)	3 (1.6)	2 (1.1)	-	1 (.5)	6 (.8)	7 (4.0)	18 (2.1)	8 (3.1)	33 (2.6)		
③즐겁게 헤드림	29 (1.4)	3 (1.6)	2 (1.1)	3 (1.5)	-	8 (1.0)	3 (1.7)	16 (1.9)	2 (.8)	21 (1.6)		
④원하는 것 헤드림	25 (1.2)	3 (1.6)	7 (3.8)	2 (1.0)	2 (1.0)	14 (1.8)	2 (1.1)	6 (.7)	3 (1.1)	11 (.9)		
⑤의견존중	16 (.8)	4 (2.1)	2 (1.1)	-	-	6 (.8)	4 (2.3)	4 (.5)	2 (.8)	10 (.8)		
⑥이해헤드림	15 (.7)	1 (.5)	-	-	-	1 (.1)	1 (.6)	10 (1.2)	3 (1.1)	14 (1.1)		
7. 대화함	192 (9.3)	7 (3.7)	13 (7.0)	12 (6.2)	21 (10.0)	53 (6.8)	19 (10.9)	99 (11.6)	21 (8.0)	139 (10.7)		
①대화함	158 (7.6)	4 (2.1)	11 (5.9)	8 (4.1)	21 (10.0)	44 (5.7)	17 (9.8)	85 (10.0)	12 (4.6)	114 (8.8)		
②말동무	34 (1.6)	3 (1.6)	2 (1.1)	4 (2.1)	-	9 (1.2)	2 (1.1)	14 (1.6)	9 (3.4)	25 (1.9)		
8. 자주 찾아뵙	121 (5.8)	6 (3.2)	7 (3.8)	8 (4.1)	15 (7.1)	36 (4.6)	12 (6.9)	58 (6.8)	15 (5.7)	85 (6.6)		
①자주 찾아뵙	116 (5.6)	6 (3.2)	7 (3.8)	8 (4.1)	14 (6.7)	35 (4.5)	12 (6.9)	54 (6.3)	15 (5.7)	81 (6.3)		
②가까운 곳에 거주	5 (.2)	-	-	-	1 (.5)	1 (.1)	-	4 (.5)	-	4 (.3)		
9. 문안인사	101 (4.9)	1 (.5)	4 (2.2)	4 (2.1)	7 (3.3)	16 (2.1)	10 (5.7)	57 (6.7)	18 (6.9)	85 (6.6)		
①안부 전화	58 (2.8)	1 (.5)	3 (1.6)	1 (.5)	3 (1.4)	8 (1.0)	6 (3.4)	36 (4.2)	8 (3.1)	50 (3.9)		
②문안인사	43 (2.1)	-	1 (.5)	3 (1.5)	4 (1.9)	8 (1.0)	4 (2.3)	21 (2.5)	10 (3.8)	35 (2.7)		
10. 기타	50 (2.4)	6 (3.2)	3 (1.6)	7 (3.6)	2 (1.0)	18 (2.3)	2 (1.1)	21 (2.5)	9 (3.4)	32 (2.5)		
①모름	12 (.6)	1 (.5)	-	3 (1.5)	-	4 (.5)	-	8 (.9)	-	8 (.6)		
②요양시설 이용	7 (.3)	1 (.5)	2 (1.1)	2 (1.0)	1 (.5)	6 (.8)	-	-	1 (.4)	1 (.1)		
③없음	6 (.3)	-	-	-	-	-	-	2 (.2)	4 (1.5)	6 (.5)		
④기타	25 (1.2)	4 (2.1)	1 (.5)	2 (1.0)	1 (.5)	8 (1.0)	2 (1.1)	11 (1.3)	4 (1.5)	17 (1.3)		
총합계	2072 (100.0)	188 (100.0)	186 (100.0)	194 (100.0)	210 (100.0)	778 (100.0)	174 (100.0)	852 (100.0)	262 (100.0)	1294 (100.0)		

표 5는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마음 편하게 해드림(32.7%)이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으로 모시고 사는 것, 대화함, 보살펴드림이 각각 10~20% 사이이며, 이외에 자주 찾아뵙, 순종함, 경제적 지원, 함께 시간 보냄 범주가 포함되었다.

세대집단별로 보면, 청소년 경우에 마음 편하게 해드림 범주(25.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나, 모시고 사는 것 범주(23.1%)도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보살펴드림, 순종함 등의 순서를 보였다. 청소년 중에 초등학교생만 마음 편하게 해드림의 비율이 가장 높고, 중학생 이후는 모시고 사는 것 범주의 비율이 더 높은 점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도 마음 편하게 해드림 범주(36.7%)가 가장 대표적인 범주였는데 청소년보다 반응률이 더 높았다. 마음 편하게 해드림 다음으로는 대화함, 모시고 사는 것 등의 순서를 보였다. 부모는 청소년에 비해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응답이 낮았다.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부모집단 반응을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50대 이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이며, 30대가 가장 낮았다.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을 분석한 결과가 표 6이다. 전체적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범주였고, 이어서 보살펴드림, 순종함, 경제적 지원 범주가 각각 10% 이상이었다. 이외에도 함께 시간 보냄, 마음 편하게 해드림, 대화함, 자주 찾아뵙, 문안인사가 포함되었다.

세대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청소년은 모시고 사는 것의 반응률이 2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살펴드림, 경제적 지원의

순서로 각각 10% 이상이였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생은 보살펴드림이, 중 고 대학생은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대표 범주였다. 부모는 보살펴드림이 가장 대표적인 범주였으며, 이어서 순종함, 모시고 사는 것, 대화함, 마음 편하게 해드림, 함께 시간 보냄이 각각 10% 이상의 비율이었다. 그러므로 부모는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으로 모시고 사는 것의 비중이 청소년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부모집단의 연령별로 보면, 모시고 사는 것의 비율이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 30대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젊을수록 모시고 사는 것을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았다.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의 차이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가 표 7이다. 청소년과 부모는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집단별 평균을 보면, 부모가 청소년보다 노부모부양효능감 및 노부모 부양태도에서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청소년보다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낮고, 노부모 부양태도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청소년 학교급별로 노부모부양효능감 및 노부모 부양태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 한 결과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하위집단별 평균 차이검증을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한 결과, 노부모부양효능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교생의 순서로 낮아졌다. 노부모 부양태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생의 평균이 높고, 중, 고, 대학생은 동질집단으로

표 7. 세대집단별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의 차이

종속변인	청소년/부모세대별	N	M	SD	t
노부모부양효능감	청소년	817	3.78	.64	16.02***
	부모	1605	3.34	.66	
노부모 부양태도	청소년	816	3.91	.77	23.17***
	부모	1574	3.09	.85	

종속변인	청소년 학교급별	N	M	SD	F
노부모부양효능감	초	204	3.96 ^c	.71	9.76***
	중	195	3.80 ^b	.63	
	고	198	3.63 ^a	.60	
	대	220	3.74 ^{ab}	.58	
노부모 부양태도	초	203	4.08 ^b	.76	5.87***
	중	194	3.89 ^a	.85	
	고	199	3.76 ^a	.80	
	대	220	3.90 ^a	.65	

종속변인	부모 연령별	N	M	SD	F
노부모부양효능감	30대	212	3.27	.63	2.44
	40대	1037	3.33	.66	
	50대 이상	348	3.40	.66	
노부모 부양태도	30대	210	2.98 ^a	.88	5.11**
	40대	1017	3.08 ^a	.83	
	50대 이상	339	3.20 ^b	.88	

* $p < .05$, ** $p < .01$, *** $p < .001$, ^{a,b}는 Duncan test 결과임.

서 초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등학생이 중 고 대학생보다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높고 노부모 부양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부모 집단 내에서 연령별로 노부모부양효능감 및 노부모 부양태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노부모부양효능감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p > .05$), 노부모 부양태도에서는 $p < .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50대 이상 집단의 노부모 부양태도 평균값이 높고, 30대와 40대는 동질집단으로서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므로 30대나 40대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다 노부모 부양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의 상관을 구한 결과가 표 8이다. 어머니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 및 노부모 부양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태도가 정적 상관이었으며, 어머니의 노부모 부양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 및 노부모 부양태도와 정적 상관이었으나 상관의 강도가 높지 않았다.

표 9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해 아버지 노부모부양효능

감, 어머니 노부모부양효능감, 아버지 노부모 부양태도, 어머니 노부모 부양태도의 4개 독립변인이 투입되었다. Stepwise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4개 독립변인 중에 어머니 노부모부양효능감이 청소년 노부모부양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노부모부양효능감이 청소년 노부모 부양태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표 9에서 β 를 보면, 정적인 값을 나타내고, 둘 다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따라서 아버지는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노부모 부양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하였다.

표 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 간 상관

청소년		부	노부모부양효능감	노부모 부양태도
노부모부양효능감			.06	.06
노부모 부양태도			.10**	.06
청소년		모	노부모부양효능감	노부모 부양태도
노부모부양효능감			.15***	.09*
노부모 부양태도			.15***	.07*

* $p < .05$, ** $p < .01$, *** $p < .001$

표 9.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R^2	F
노부모부양효능감: 청소년	노부모부양효능감: 모	.16	.16***	.16	.03	19.40***
노부모 부양태도: 청소년	노부모부양효능감: 모	.18	.15***	.15	.02	17.02***

* $p < .05$, ** $p < .01$, *** $p < .001$

종합 논의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노인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상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의 의미와 변화

전통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하면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회적 표상이었다. 동양의 나라들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노부모 부양행동으로 보인다. 예컨대 스리랑카 경우에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 노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사는 것이 의무와 역할이라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Watt et al., 2014).

그러나 점차 노부모 부양의 의미가 다양해지면서 모시고 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도 최근에는 부양하는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과반수(김해란, 김윤정, 2011)를 차지했다. 이 연구의 결과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한국 중년 성인 및 청소년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으로서 모시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보살피드림, 순종함, 경제적 지원, 함께 시간 보냄, 마음 편하게 해드림, 대화함, 자주 찾아뵙, 문안 인사와 같은 범주들이 5~20% 사이의 비슷한 비율로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사실(표 6 참고)

이 이를 뒷받침한다. 총 9개 개념 범주 중에서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지만, 그것은 청소년의 반응률이 높아서이고 부모 경우에는 오히려 보살피드림과 순종함이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욱 대표적인 노부모 부양 행동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한편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마음 편하게 해드림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모시고 살기라는 응답은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표 5 참고). 특히 부모 경우에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서, 모시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게 해드림이나 대화함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5 참고).

변화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다양한 사회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형태가 노부모 중심의 대가족이 아닌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전통적 가치만을 노부모 부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살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해 드린다는, 보살피드림, 순종한다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도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함께 모시고 사는 것 외의 다양한 노부모 부양행동을 수용하는 변화가 중년 성인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양 부담이 가족 부양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서경현, 천경임, 2009; Chun et al., 2007). 특히 치매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부양자의 불안과 우울 등의 어려움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방식의 부양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같은 동

네나 같은 도에 사는 경우에 관계의 질이 더 좋았다는 결과(최정혜, 2009)는, 노부모를 모시고 동거한다고 해서 노부모와 관계의 질이 더 높은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모시고 살면 신체적 부양은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심리적 부양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의 웰빙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와 독일과 같은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노모가 성인 딸에게 제공하는 도움이 노모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Schwarz, Albert, Trommsdorff, Zheng, Shi, & Nelwan, 2010)는 이러한 필요를 시사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성인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노부모의 정신건강이나 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노부모 부양을 제공하는 성인자녀의 부양부담과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년 성인자녀들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대한 인식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노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시고 살기를 성인 10명 중에서 1~2명 정도만이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으로(표 6 참고), 1명 정도만이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표 5 참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노인 1인 가구가 증가(변미리, 2015)하는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은 거주 형태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녀 모두 독거노인이 동거노인보다 우울(서경현, 김영숙, 2003)하였다. 관심을 가져주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고독감은 남녀 노인에게 정서적 불안정성을 높였다(장휘숙, 김나연, 2011).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왔다. 노부모의 성공적 노화를 돕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의 따뜻한 지원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혜경과 서경현(2016)이 도시거주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면접하였을 때, 독거노인들의 불안이나 우울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들과 관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가족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경숙(2000)이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는 동거하는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떨어져 있는 자녀와의 근거리 내 교류나 지역사회와의 교류 정도는 약한 편이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노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지역사회보다는 가족관계에서, 자녀와의 연락보다는 동거에서, 만족도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들의 정신건강이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노부모의 입장에서는 성인자녀가 모시고 사는 것이 성인자녀가 인식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부양방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년 성인자녀들이 선호하는 가족형태와 가족가치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동시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양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그동안 인간발달에 대한 연구가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중년에서 나아가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주의 가치로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기대와 염원

한국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노부모를 부양할 때 좋은 점(표 3 참고)을 질문했을 때 가정화목이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청소년은 응답자의 1/3 이상이 가정화목 범주에 속하는 응답을 하였다. 부모 집단 경우에 비록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범주는 자녀교육에 도움 됨이었으나, 비슷한 반응률의 두 번째 범주가 가정화목이었다. 한편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려움(표 2 참고)에 대해 부모들은 의견 차이를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지적하였으며, 이외에도 가족 간 갈등이 중요한 범주로 부각되었다. 이는 화목한 가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화목한 가정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함축하고 있다.

화목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어 왔다.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와 유호식(2009)이 세대 집단별 생활목표의식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 모두 가정화목이 자아실현이나 사회봉사 및 부귀영화와 관련된 생활목표보다 가장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과 박선영(2013)이 한국 성인 행복을 분석했을 때, 가정의 화목이 가정생활 행복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직업에서의 성취수준이나 가정의 경제수준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노부모를 부양할 때 좋은 점(표 3 참고)으로 가정화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대표 범주였다는 사실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노부모 부양의 좋은 점으로 가정화목에 이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과 자식의 도리가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자녀에 초점을 둔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에 초점을 둔 부모자녀관계 양면을 모두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주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한국 사람의 노부모 부양이 가족주의나 관계주의에 뿌리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맥락적 요인으로서 가족주의와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모형(김민희 홍주연, 2010b)에 의하면, 가족주의가 높고 관계성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 사람들은 노부모 부양의 좋은 점으로 가정화목을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경제적 혜택은 전체 반응의 0.9%에 불과하였다(표 3 참고).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에서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함께 사는 이유가 경제적 불안정으로 나타났다(Isengard et al., 2012). 이러한 결과는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유에 문화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민족별로 노부모 부양의 문화적 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인,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가족 부양자들에 따라 가족주의와 같은 문화적 가치에 차이가 있었다(Knight et al., 2002).

청소년에게 화목한 가정이 중요한 가치이며, 이러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부모 부양을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성인도 노부모 부양의 좋은 점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청소년보다는

상대적인 비율이 낮았다(표 3 참고). 이는 청소년 경우에 실제 노부모 부양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만 하는 것이고, 성인은 실제 노부모 부양을 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어 본 차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부모와 의견 차이로 인한 가족 갈등을 직접 경험하면, 이런 갈등이 화목한 가정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인식했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으로 의견차이(표 2 참고)의 중요성은 노부모 부양 인식에 대한 질적 분석(조성남, 2006)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세대간 사고방식 차이, 생활패턴 차이, 자녀교육에 대한 노부모의 간섭 등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으로 중년 성인들이 의견 차이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이외에도 가족 간 갈등이 의미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사실(표 2 참고)과 관련하여,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는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의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유연지 등, 2008)을 미치고, 가정생활만족도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중년 성인들의 고충이 시사된다. 한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화목한 가정에 대한 목표와 기대가 높으나, 현실은 생각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족주의 가치는 화목한 가정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 하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와 의존은 가족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으로써, 양면성을 보이기도 한다. 성인 자녀가 노부모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문정희, 안정신, 2014)이 이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드러났다. 노부모와 함께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이

뒤섞이는 양가감정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노부모와 함께 하면 좋은 점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다양하고 풍부해져서 긍정적 감정을 많이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성숙(2007)은 한국 사회가 외형적으로는 서구화 되었어도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어 가족 간 갈등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개인을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와 가족주의 공동체의식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가족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적 상담모형을 제안했다. 한국 사회의 가정과 가족관계가 건강함을 회복해 나가는데, 가족주의 가치에 토대하는 노부모 부양이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탐색이 필요하다.

경로효친 정신의 계승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긴다는 경로효친 사상이 여전히 한국 사람의 의식에 자리하고 있음이 이 연구에서 드러났다. 노부모 부양할 때 좋은 점에 대해 자식의 도리를 다함이 세 번째로 대표적인 범주로 부각(표 3 참고)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함으로서 느끼는 만족감은 경로효친의 정신에서 볼 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의 일환이다. 또한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으로 죄송함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이 외에 마음이 불편함, 마음이 아픔, 걱정됨, 후회됨, 불효함(표 4 참고)과 같은 범주가 부각되었는데, 이러한 마음들은 모두 경로효친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느껴지는 정서들이다. 만약 이러한 유교적 가치가 한국인 의식구조의 내

면에 집단무의식과 같이 자리 잡지 않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하지 않았을 때 죄송하다든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프다든가, 불효하는 것과 같은 정서를 인지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로 인식되는 이러한 경로효친사상은 한국인의 가치인식으로서 현대에도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도 노부모 부양을 통한 가족주의 가치 및 경로효친의 정신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 40대 성인들은 노부모 부양의 우선적인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인식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었다(조성남, 2006). 또한 기혼 교사들을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을 분석했을 때,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이 모두 높았다(최정혜, 2007).

서양인도 자식으로서 의무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노부모 부양을 더 잘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Paulson et al., 2016). 자식으로서 의무감이 노부모 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인도 동일하지만,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인의 효도와 경로효친사상은 서양인들이 지각하는 자식으로서 의무와는 다른 토착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이 노부모 부양인식에 작용하고(김미희, 홍주연, 2010a), 노인을 가족 간병하는 데 따른 우울과 같은 정신적 반응이 문화에 따라 다르며(전미애, 2006), 동서양 국가 간 비교에서도 노부모 부양행동(최정혜, 2009) 및 부양 압력에 차이가 있다(Nair, 2011)는 사실은, 노부모 부양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문화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인 가족부양자는 경로효친사상이나 가족주의와 같은 유교문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신체

적으로 건강했고(김정현, Knight, 2009), 가족 간병인(배우자, 며느리, 딸)의 효 가치관이 우울을 감소했다(전미애, 2006)는 사실은 한국인 노부모 부양인식을 토착적인 경로효친의 정신에서 검토해 볼 필요를 시사한다.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유교철학이 태동된 중국에서도 효도나 가족주의로 대표되는 노부모 부양 관련 전통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것은 근본정신의 변화라기보다 표현 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신체적 부양은 부양스트레스를 높였으나 노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부양스트레스를 낮추었고, 신체적 수발이나 경제적 부양은 점차 퇴색하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편안하게 하려는 정서적 부양은 여전히 중요한 부양가치였다(김해란, 김윤정, 2011; Bryant et al., 2013). 그러나 근본정신과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생활양식의 변화인지에 대해 선부른 결론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정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망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사람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이 연구를 통해서도 시사되었다. 노부모 부양할 때 좋은 점에 대해, 부모 집단은 자녀교육에 도움 됨을 10명 중에서 3명 정도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표 3 참고). 청소년 집단은 부모만큼 많은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발달단계를 고려해 볼 때,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결과는 높은 반응률이다. 부모와 청소년을 합한 전체 반응률을 보면, 노부모 부양을 할 때 좋은 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긍정화목을 가장 많이 지적했지만, 두 번째 범

주가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 사람들의 높은 성취의식은 교육열이 강한 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서, 높아진 효능감이 학업성취를 높인다는 경험과학적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2013)이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는 노부모 부양의 생활환경이, 지적 성취는 아니지만 예절교육 등 자녀 인성교육의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대학입학시험 합격과 같은 단기적 목표를 향한 지적인 수월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성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미래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 경우에 자녀 인성교육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취업주부들의 직장에서 자유로운 활동와 성취를 가능하게 도와준다(Igel et al., 2011).

그런데 입장과 역할에 따라 동일한 상황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노부모를 부양할 때 좋은 점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고 부모님이 자녀양육을 도와준다는 반응(표 3 참고)이 나왔지만, 이것은 부모나 청소년 입장이다. 노부모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노부모가 성인자녀와 경험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갈등으로 손자녀 문제 갈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손자녀 문제는 양육부담과도 관련되어 있었다(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3). 즉 노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과도한 부담으로 지각하게 될 때,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담양육 노부모는 원조양육 노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인자녀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성인자녀와 관계의 질이 낮았다(최혜지, 2004).

한편 노부모를 부양할 때 좋은 점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표 3 참고)는 반응으로부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속담을 연상하게 된다.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뜻인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다. 경찰관에 의하면(박종욱, 2014) 2007년 7월부터 아동과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을 포함하여 실종예방사전등록제를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 12월 기준으로 경남지역 아동의 22.3%가 사전 등록되었는데 비해, 치매노인의 등록률은 0.7%에 불과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밝혀졌는데, 중년 성인이 자녀에 대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노부모에 대해서는 기꺼이 부양하지만 부담을 느끼는 양가감정을 가졌다(Igarashi et al., 2013). 또한 성인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녀에게 집중했고(Fingerman et al., 2012), 노부모보다 자녀에 대해 더욱 빈번히 지원하며, 자녀에 대한 지원이 더욱 긍정적인 정서와 연결되었다(Fingerman, et al., 2016).

이 연구의 결과도 노부모를 부양해서 노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것보다는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은, 부모 공경보다 자식 사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부모를 잘 돌보는 일이 자식을 잘 돌보는 일처럼 본능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면, 계몽을 통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실천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노인 문제는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을 위한 차원을

넘어, 노인의 우울과 자살 등 사회 병리현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서적 부양의 중요함과 죄송함 정서의 역동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 부양(Abell, 2001)을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 범주인 마음 편하게 해 드림은 정서적 부양을 의미한다. 10명 중 3명 정도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마음 편하게 해 드림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표 5 참고). 이 외에도 대화함 순종함과 같은 범주들도 정서적 부양에 포함된다. 이외에 모시고 사는 것이라든가, 보살피 드림, 자주 찾아뵙고 같은 범주들은 신체적 부양에 가깝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경제적 부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의 현대 노부모 부양인식은 정서적 부양이 핵심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부양, 경제적 부양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부양 중심의 효의식은 현대 중국 사회에서도 부양가치관의 핵심 가치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혜란, 김윤정, 2011).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 지원을 강조하는 경향은, 인생의 성공을 위한 다른 사람의 도움(박영신, 김의철, 2013)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박영신, 김의철, 2017)으로,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결과와 일관된 맥락에서 이해된다.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정서적 지원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정서를 중요시 여기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연구에서 한국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노부모 부양방법으로 마음 편하게 해 드림과 같은 정서적 부양이 부각되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현저한 특징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 성인자녀들이 한국 성인자녀보다 정서적 부양행동을 더 많이 했다는 결과(최정혜, 2009)도 있다. 물론 좋은 부양방법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부양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한국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지각했을 때 느끼는 대표 정서가 죄송함이었다. 노부모 부양을 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으로 청소년이나 부모 모두 죄송함을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했는데, 2,000명이 훨씬 넘는 응답자 중에서 과반수가 그렇게 자유 반응 했다(표 4 참고). 노부모 부양의 어려운 점이나 좋은 점, 좋은 방법과 행동에서는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대표 반응에 질적 차이가 있었지만, 노부모 부양을 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으로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 2명 중 1명이 죄송함을 느꼈다. 이러한 사실은 세대를 불문하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도리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각했을 때 느끼는 공통의 정서가 죄송함을 보여준다.

효도하지 않았을 때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죄송함인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죄송함이라는 정서가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청소년 경우에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성취동기를 증진하는데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나아가서 청소년의 학업성취(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와 행복(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을 증진시키는 기반으로서 자기효능감에

의미 있게 작용했다.

앞으로 죄송함과 같은 정서를 측정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려움으로 노부모의 건강문제 및 보살펴드리지 못함(표 2 참고)이 중요한 범주였고,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으로 죄송함이 과반수를 차지했다(표 4 참고). 그렇다면 노부모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죄송한 마음을 당연히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외에도 마음이 불편함, 마음이 아픔, 걱정됨, 후회됨, 불효함과 같은 정서들이 있었다. 한국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관련된 정서를 측정할 때, 정신건강 측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울과 같은 정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죄송함과 같은 토착적 정서들이 측정되어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을 정교하게 설명하는데 더욱 생동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에서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 중에, 비록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편안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눈에 띈다. 모든 응답자가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아서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하며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며 후회되어 불효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100명 중에서 2~3명 정도는 오히려 편안했다. 성인만이 아니라 청소년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였다.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긍정 정서를 준다는 것은, 노부모와 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반응이 어떠한 변화 추이를 가질 것이며,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 차이

청소년과 부모 세대는 노부모 부양인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노부모 부양할 때 어려움에 대해 청소년은 경제적 문제를, 부모는 의견 차이를(표 2 참고), 노부모 부양할 때 좋은 점으로 청소년은 가정화목을, 부모는 자녀 교육에 도움 됨을(표 3 참고), 노부모 부양행동으로 청소년은 모시고 사는 것을, 부모는 보살펴드림을(표 6 참고) 대표적으로 지적했다.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청소년은 마음 편하게 해 드림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비슷한 비율인 반면, 부모는 마음 편하게 해 드림 다음으로 대화함을 많이 지적했다(표 5 참고).

다양한 세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과 부모가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사회적 표상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상민과 양진영(2002)의 세대 분류를 적용해 보면, 이 연구의 청소년 집단은 신인류 세대라 할 수 있고, 부모 집단은 경제부흥기세대와 민주화세대와 자율화세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민주화세대가 많다.

한 가정에서 함께 지내고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대 집단별로 이렇게 노부모 부양에 대해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동안 많은 국내 연구들(김지연, 도영임, 2014; 박영신, 김의철, 2005; 정태연, 2001; 황상민, 2000)에서 밝힌 세대차의 내용이 무엇이었던 간에,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에 차이가 있음을 지지한다. 국외 연구에서도 세대별로 가족부양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성인자녀와 노부모는 가족부양의

식에서 차이(Guberman et al., 2012)가 있었다.

동일 세대 내의 하위 연령 집단별로 노부모 부양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노부모 부양할 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청소년은 초, 중, 고, 대학생으로 될수록, 부모는 30, 40대보다 50대 이상 집단이 더 많이 했다(표 2 참고). 이는 동일 세대 내에서도 하위 연령 집단별로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부모 부양행동에 대해 30대와 40대는 보살피드림이라든가 순종함과 같은 범주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범주에 대한 반응률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나, 50대 이상 집단에서는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응답이 대표 범주였다(표 6 참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전통적 방법을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으로 지각하는 경향도 30대보다 40대를 거쳐 50대 이상 집단이 될수록 반응률이 증가했다(표 5 참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로 노부모 부양인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단지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연구 필요성을 확인했을 뿐이다. 노부모 부양인식에서의 세대 차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미래 노인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변화하는 가족가치의 정립 및 발전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박영신 등(2016)의 연구에 이어서 노부모 부양인식의 구성 내용들을 찾아내어, 세대 집단 간 차이가 탐색되었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인식의 내용을 측정하는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이 변인들이 다양한 관련 변인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지 과학적 검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자녀보다 낮은, 부모 세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

청소년 자녀와 부모 세대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의 내용에서만 아니라,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모 세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는 청소년 자녀보다 의의 있게 낮았다(표 7 참고).

중년 성인이 어린 청소년 자녀보다 노부모 부양효능감이 낮고 노부모 부양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를 두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 측면은 성인자녀의 부양부담과 부양스트레스가 노부모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한국 성인자녀들이 지각하는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의견차이가 각각 20%를 넘는 대표적 범주였고, 이외에 자유롭지 못함, 가족 간 갈등, 건강문제 등이 10%를 넘었다(표 2 참고). 이러한 부양의 어려움은 노부모와 관계의 질을 저하하는데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성인자녀가 미국의 성인자녀보다 노부모와 관계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최정혜, 2009)된 바 있다.

다른 측면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현실 상황에 처해 있는 중년의 부모 집단은 노부모 부양의 역할을 추측과 생각만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자녀 집단에 비해, 노부모 부양에 대해 더욱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는 결과 효능감도 낮아지고 힘겹게 지각할 수 있다. 삶의 누적된 성공 경험을 통해 인간이 효능감을 얻고 성장할 수도 있지만, 누적된 어

려운 경험을 통해 현실을 알아가면서 효능감이 저하되고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중년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낮고 노부모 부양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현재 한국의 중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의 현실이 녹록치 않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서 전반적으로 힘겨운 과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은 가족 구성원 개별적이거나 가족 공동체 내의 숙제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중년 성인들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표 9 참고), 청소년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는 어머니 노부모부양효능감의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아버지의 노부모 부양태도도 예언변인으로 투입되었으나, 아버지 변인은 모두 청소년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노부모 부양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실제로 잘 부

양하는가에 의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노부모부양효능감이 아니라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각도로 검증되어 왔다(박영신, 김의철, 2004b; 박영신 등, 2015). 그리고 이 연구에서 자녀 특성 중에서도 특히 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가정 환경의 중요성(표 9 참고)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의식이 부모-조부모의 친밀감에 영향을 받았다(정동하, 2009)는 사실도 같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의 영향을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라는 집합체를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영향력이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자녀가 노부모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정희와 안정신(2014)의 연구도 노부모를 집합체로 다루지 않고 각 대상을 분석하였다. 아들의 경우 어머니에 대해 부양의무감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가치관이 양가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딸은 어머니에 대해 본인 나이,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 나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차이가 있었다.

부와 모의 영향을 구분하여 자녀에 대한 세대전승을 분석할 때, 동성 부모이나 이성 부모이나의 변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이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 및 노부모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표 9 참고)는, 노부모부양효능감이 세대전승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원준과 신성자(2015)는 부모수발에 대한 자녀 헌신이 동성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세대간 전승이 되

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동성 부모와 자녀만을 짝지은 표집설계였기 때문에, 이성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간 전승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못한다. 동성 부모 또는 이성 부모의 영향을 구분하는 연구설계는 더욱 정교한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버지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부양태도를 어머니 변인과 함께 투입했을 때 아버지 변인들은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 노부모부양효능감만 유의한 예언변인인 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강력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고, 특히 가족관련 가치형성 과정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세대전승 되는 중요한 심리특성일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 노부모부양효능감은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 노부모부양태도는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부모 부양태도보다 어머니 노부모부양효능감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자녀의 노부모 부양태도나 노부모부양효능감에 미친 영향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부모자녀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은 청소년 들일수록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박영신 등, 2015).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노부모 부양태도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인 노부모 부양 토착심리 탐구를 위한

방향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가 탐구되어 왔다(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b; 2013; 2014; 2017). 그 일환으로 한국 사람의 효도 관련 토착심리를 분석하는 노력이 있었고(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박영신 등, 2009),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이 효도에 미치는 영향(박영신 등, 2015)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다. 효도인식과 그것의 심리적 역동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가족형태별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바 있다(박영신 등, 2016). 나아가서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가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표상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일련의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한국인의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토착심리 탐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토착심리의 철학과 접근방법에 의거하여(Kim & Park, 2004; Kim, Yang & Hwang, 2006), 한국인의 노부모 부양 심리를 누적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미래 한국 사회의 예측과 준비를 위해서도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각 민족집단이 갖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Cooney et al., 2011; Daatland et al., 2011; Dilworth-Anderson et al., 2004). 예를 들어 유교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민족들은 효도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정신적 가치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개인주의 문화의 호주에서 지낸다 해도 중국계 가정에서는 효도가 노인을 부양하는 중요한 가치였고, 단지 효도의 실천

방법에 대한 의미가 변화할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Bryant et al., 2013). 국가간 비교 연구로는 한국과 미국 성인자녀들의 노부모와 관계의 질을 살펴본 경우(최정혜, 2009)도 있다.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시고 사는 것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표 6 참고), 한국인들이 노부모 부양 행동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시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토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때의 부양 개념은 예를 들어 Abell(2001)이 분류한 것과 같은 정서적 부양이나 도구적 부양이나 신체적 부양과 같은 어느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도구적이며 신체적인 부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개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가족가치와 의식구조의 변화에 대한 단초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노부모 부양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경제적 부양행동, 정서적 부양행동, 서비스적 부양행동(최정혜, 2009)으로, 또는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경제적 부양(김해란, 김운정, 2011)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노부모 부양을 측정하는 하위변인의 정교화는 한국인의 노부모 부양 관련 토착심리 규명 과정에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주의 가치와 경로효친 정신 등 한국인의 토착적 노부모 부양인식의 뿌리를 찾아나가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감은 우울을 증가시키지만, 효 가치관이 능동적 대처를 적응양식으로 선

택함으로써 우울을 저하시켰다(전미애, 2006). 물론 가족 간병인에 며느리나 딸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되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전통 가치와 문화가 노부모 부양태도만이 아니라 부양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족 부양에서 문화가 미치는 영향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족주의나 관계주의와 같은 문화적 가치가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가족주의와 스트레스가 정적 관계에 있고 오히려 부양부담을 높인다는 결과(Knight et al., 2002)도 있다.

부양부담과 같은 노부모 부양인식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양적 방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Funk(2015)는 자녀로서 책임감(filial responsibilities)의 의미 구성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 바 있다. Bastawrous(2013)는 그동안 주로 사용된 부양자 부담(caregiver burden)에 대한 양적 측정들은 문화와 같은 맥락적 특징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부양자 부담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부양자 부담 개념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혼합 방법도 사용할 것을 추천한 바 있다.

한편 취약한 노인을 가족이 부양할 때 부양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주로 부양부담이라든가 우울과 같은 정서가 폭넓게 분석되어 왔다. 이에 비해 죄책감과 같은 정서는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했음을 Losada, Marquez-Gonzalez, Penacoba와 Romero-Moreno(2010)는 지적하고,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죄책감 질문지를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노부모 부양

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죄송함은 Losada 등 (2010)이 개발한 죄책감과 문화적 함의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죄송함과 같은 한국인의 정서가 어떠한 토착적인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정서가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밝혀내어 일반화할 수 있다면, 한국인 토착심리를 규명해 나가는데 의미있는 발견이 되리라 기대된다. 관계문화에 토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관계적 자기를 통해 형성되는 자기개념(Kim et al., 2006)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죄송함과 같은 정서들이 한국인의 성취 및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밝혀내는 과정에서도 찾아질 수 있고, 서양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한국인 토착심리의 역동을 찾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요약

현시대의 중년기 성인들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요구받으면서 동시에 자립적으로 노후설계를 해야 하는 이중적 잣대의 모순적 발달과제를 요청받고 있다(전혜성, 김미영, 2012).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가운데, 개인의 노후설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 중에 중년의 부모집단은 자립적 노후설계를 해 나가면서 동시에 노부모 부양의무도 수행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청소년 자녀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 집단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살펴본 결과, 세대간에 많은 차이가 드러났다. 노부모를 부양할 때 어려움에 대해 청소년은 경제적 문제를, 부모는 의견 차이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노부모를 부양할 때 좋은 점으로 청소년은 가정화목을, 부모는 자녀교육에 도움 됨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노부모 부양의 대표적 행동으로 청소년은 모시고 사는 것, 부모는 보살펴드림의 반응률이 가장 높았다. 앞으로 세대간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되며 나아가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되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청소년과 부모 집단은 노부모 부양관련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 집단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더 낮고, 노부모 부양태도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청소년보다 부모 집단은 노부모 부양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낮아지고, 노부모 부양태도가 부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노부모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중년 성인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노부모 부양태도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대해 어머니의 노부모부양효능감이 의미있는 예언변인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결과에 주목하

면서, 앞으로 어머니 자기효능감의 자녀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검증이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제한점

이상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가능한 논의들을 다루었다. 아래에서는 이 연구의 제한점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한국인 노부모 부양인식의 탐구를 위해 다섯 측면(노부모 부양의 어려움, 좋은 점, 부양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 좋은 방법, 대표적 행동)에서 접근했지만, 이외에도 여러 시각에서 노부모 부양인식을 규명하면 질적으로 더욱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노부모를 자신의 부모인지, 배우자의 부모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명료히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나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윤정과 최유호(2007)가 성인 자녀의 노부모 부양동기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은 자발적인 친밀감에 의한 것이고,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의무감에 의해 부양을 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노부모와 동거는 비동거보다 갈등을 증가시켰는데, 딸과 친정부모의 관계보다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이여봉, 2011).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 대상이 본인의 부모인지 배우자의 부모인지에 따라 동일한 동거 상황에서도 갈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노부모 부양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제한된 4개의 독립변인(부/모 노부모부양 효능감, 부/모 노부모 부양태도)만 투입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예측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독립변인들이 투입된다면 더욱 타당도 높은 결과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 결과에 토대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종합 논의에서 폭넓게 다루어졌다. 아래에서는 노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중년 성인 원가족에서 과거의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중년 성인의 노부모에 대한 은혜 되갚음으로서 노부모 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연구설계를 구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년 성인 원가족의 과거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 부양만이 아니라 현재의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동시에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3대에 걸친 가족관계 역동의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중년 성인에게 중요한 인간관계인 노부모를 부양한다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개인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의 노부모 부양심리의 메커니즘을 밝혀 나가는 후속연구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탐구하고,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가족형태별 노부모 부양인식 연구(박영신 등, 2016)를 확장하여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탐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인식의 토착심리를 세대간 차이의 시각에서 탐구하는데 그치기보다, 부모가 청소년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관련된 하위변인이 부모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만 국한됨으로써, 부모가 보이는 모델로서의 영향은 검토되었으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측면은 다루어지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 양육태도의 측면을 포함하여 3대에 걸친 심리적 역동을 노부모 부양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현재 노부모 부양을 제공하고 있는 성인자녀로서의 부모 집단 및 앞으로 노부모 부양을 제공해야 할 청소년 집단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을 제공받는 노부모의 시각에서 노부모 부양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노부모의 시각에서 노부모 부양의 좋은 방법이나, 대표적인 부양행동 및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았을 때 드는 마음 등을 분석해 본다면, 성인자녀와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도 발견될 것이다.

노부모의 입장과 성인자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노부모 부양의 제공과 성인자녀 및 노부모 웰빙의 관계를 분석(Merz, Schulze & Schuengel, 2010)했을 때, 노부모 부양과 성인자녀의 웰빙 및 부양부담은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고, 노부모 부양과 노부모의 웰빙이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같이 동거를 해도 부양을 받는 노부모의 입장(박경숙, 2000)과, 부양을 해

야 하는 기혼여성의 입장(이여봉, 2011)은 다를 수 있다. 기혼여성은 시부모든 친정 부모든 따로 살기보다 동거하는 경우에 갈등수준이 높았는데(이여봉, 2011), 세대 간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갈등이 증가하는 것은, 서로의 삶에 대한 간섭과 충돌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가 동거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박경숙, 2000)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에서의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정화목을 추구하는 가족주의 가치라든가, 자식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경로효친의 정신 및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을 때 사람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정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인 고유의 가치와 정서를 후속연구에서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사회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그러한 사회에 소속되어 살고 있는 구성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 노인을 위한 장기부양정책을 시행한 후에, 가족부양자들의 효도 의무에 대한 지각에 변화가 생겼다(Tsutsui, Muramatsu & Higashino, 2014). 며느리는 아들 딸보다 새로운 노인부양정책이 소개된 후에 효도에 대한 의무를 낮게 지각했다. 이와 같이 정책도 하나의 환경 요인이 되어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 부양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할 때는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노부모 부양인식과 관련된 결과들이 추후 노인 부양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정책 구상과정에 의미 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민희, 홍주연 (2010a). 배우자 부양스트레스의 이해: 심리통합모델의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389-414.
- 김민희, 홍주연 (2010b). 대학생들의 부양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성역할 특성과 가족주의 가치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29-546.
- 김윤정, 최유호 (2007). 성인자녀의 부모부양동기에 관한 연구: 성별 및 부양자-노부모 관계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313-334.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9).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정현, Knight (2009). 문화적 가치가 수발부담 및 사회적 지지를 통해 남가주 한인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대처모델을 적용하여. *한국노년학*, 29(2), 377-394.
- 김지연, 도영임 (2014). 부모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인식 차이: 온라인 게임의 유해성/유익성, 영향과 가치, 부모자녀관계, 규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0(3), 263-280.
- 김해란, 김윤정 (2011). 중국 가족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통적 가족부양 가치의 현재적 양상. *동방학*, 20, 277-309.
- 김혜경, 서경현 (2016). 도시거주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건강심리학적 차원의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2), 431-460.
- 나은영 (2002). 탈문질주의 가치와 이동전화 이용 행동 및 태도에서의 세대차.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3(1), 17-32.
- 문정희, 안정신 (2014).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양가감정 탐색. *한국노년학*, 34(2), 409-429.
- 박경숙 (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34, 621-647.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5).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91-119.
- 박영신, 김의철 (2013). 한국인의 성취의식: 토착심리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1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토착심리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17). 한국인의 스트레스: 토착심리탐구(개정판). *파주: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박선영 (2013). 성인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0(2), 153-184.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청소년의 효도에 대한 지각과 학업성취: 부모정서적 지원과 부모관계효능감의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415-443.
- 박영신, 김의철, 안자영, 이임순 (2014). 자녀가 지각한 효도의 구성개념과 형성: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관계효능감이 자녀의 효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

- 구, 28(3), 421-454.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9).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 및 영향: 자녀양육 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3), 203-241.
- 박영신, 김정희, 전성숙 (2016). 가족형태별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2(3), 455-485.
-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9(3), 505-542.
-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 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1(3), 551-573.
- 서경현, 김영숙 (2003).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115-137.
- 서경현, 천경임 (2009). 치매환자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과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사회지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39-357.
- 서수균, 신현희, 안정신, 정영숙 (2015).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18.
-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3). 한국 노인이 지각한 부부 및 성인자녀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389-409.
- 성태계 (2010). 현대교육평가(3판). 서울: 학지사.
- 유연지, 조현주, 권정혜 (2008).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 응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33-451.
- 이여봉 (2011). 부양지원과 세대 갈등: 딸과 친정부모 그리고 며느리와 시부모. 가족과 문화, 23(1), 41-76.
- 이원준, 신성자 (2015). 노부모 수발에 대한 정서적 규범적 헌신과 부모자녀 친밀성의 세대간 전승효과: 부자, 모녀관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8(1), 125-154.
- 장성숙 (2007). 가족주의와 현실역동상담의 일체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9(3), 523-537.
- 장휘숙, 김나연 (2011). 노년기 고독과 성격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19.
- 전미애 (2006). 효 가치관이 가족 간병인의 적응양식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6(4), 665-680.
- 전혜성, 김미영 (2012).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 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와 개인의 노후설계 간의 관계성 탐색. 보건사회연구, 32(2), 206-231.
- 정규형, 박서영 (2014).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이 개인의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115-147.
- 정동하 (200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조부모 친밀감 및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29-39.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

- 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19.
- 조성남 (2006). 노인부모부양에 관한 기혼자녀 세대의 인식: 초점집단토론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3), 139-157.
- 최정혜 (2007). 기혼교사의 노부모부양의식과 부양행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2), 169-182.
- 최정혜 (2009). 한국과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부양행동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9(2), 611-627.
- 최혜지 (2004).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31-49.
- 황상민 (2000). 사이버 공간의 경험에서 나타난 부모세대와 청소년 세대집단 간의 의식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45-158.
- 황상민, 양진영 (2002).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 전이적 공존 관점을 통한 대학생 집단의 세대 이미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6(3), 75-93.
- Abell, N. (2001). Assessing willingness to care for persons with AIDS: Validation of a new measur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1, 118-130.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astawrous, M. (2013). Caregiver burden: A critical discu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50(3), 431-441.
- Bryant, L., & Lim, S. (2013). Australian-Chinese families caring for elderly relatives. *Ageing & Society*, 33, 1401-1421.
- Chun, M., Knight, B. G., & Youn, G. (2007).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models of emotional distress among Korean, Korean-American and white-American caregivers. *Ageing and Mental Health*, 11, 20-29.
- Cooney, T. M., & Dykstra, P. A. (2011). Family obligations and support behavior: A United States-Netherlands comparison. *Ageing & Society*, 31, 1026-1050.
- Daatland, S. O., Herlofson, K., & Lima, I. A. (2011). Balancing generations: On the strength and character of family norms in the West and East of Europe. *Ageing & Society*, 31, 1159-1179.
- Dilworth-Anderson, P., Goodwin, P. Y., & Williams, S. W. (2004). Can culture help explain the physical health effects of caregiving over time among African American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9B, S138-S145.
- Fingerman, K. L., Kim, K., Tennant, P. S., Birditt, K. S., & Zarit, S. H. (2016).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a daily context. *Gerontologist*, 56(5), 896-908.
- Fingerman, K. L., Pillemer, K. A., Silverstein, M., & Sutor, J. (2012). The baby boomer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Gerontologist*, 52(2), 199-209.
- Funk, L. (2015). Constructing the meaning of filial responsibility: Choice and obligation in the accounts of adult children. *Families Relationships and Societies*, 4(3), 383-399.
- Guberman, N., Lavoie, J. P., Blein, L., & Olazabal, I. (2012). Baby boom caregivers:

- Care in the age of individualization. *Gerontologist*, 52(2), 210-218.
- Igarashi, H., Hooker, K., Coehlo, D. P., & Manoogian, M. M. (2013). "My nest is full:"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t mid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27(2), 102-112.
- Igel, C., & Szydlik, M. (2011). Grandchild care and welfare state arrangements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3), 210-224.
- Isengard, B., & Szydlik, M. (2012). Living apart or together? Coresidence of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 Europe. *Research on Aging*, 34(4), 449-474.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Spielberger, C.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6).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im, U., Yang, K. S., & Hwang, K. K.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New York: Springer.
- Knight, B. G., Robinson, G. S., Longmire, C. F., Chun, M., Nakao, K., & Kim, J. (2002). Cross cultural issues in caregiving for persons with dementia: Do familism values reduce burden and distress? *Aging International*, 27, 70-94.
- Losada, A., Marquez-Gonzalez, M., Penacoba, C., & Romero-Moreno, R.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giver Guilt Questionnair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2(4), 650-660.
- Merz, E. M., Schulze, H. J., & Schuengel, C. (2010). Consequences of filial support for two generations: A narrative and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Family Issues*, 31(11), 1530-1554.
- Nair, E. (2011). Urban career women and stress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8(2), 62-65.
- Paulson, D., & Bassett, R. (2016). Prepared to care: Adult attachment and filial obligation. *Aging & Mental Health*, 20(11), 1221-1228.
- Schwarz, B., Albert, I., Trommsdorff, G., Zheng, G., Shi, S., & Nelwan, P. R. (2010).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 comparison of Chinese, Indonesian, and German elderly mot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5-6), 706-722.
- Tsutsui, T., Muramatsu, N., & Higashino, S. (2014). Changes in perceived filial obligation norms among coresident family caregivers in Japan. *Gerontologist*, 54(5), 797-807.
- Watt, M. H., Perera, B., Ostbye, T., Ranabahu, S., Rajapakse, H., & Maselko, J. (2014). Care-giving expectations and challenges among elders and their adult children in Southern Sri Lanka. *Ageing & Society*, 34(5), 838-858.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726> 박종욱 (2014).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2017.7.15.
- 논문 투고일 : 2017. 08. 03
1 차 심사일 : 2017. 08. 05
게재 확정일 : 2017. 08. 29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elderly parents care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Young-Shin Park

Young-Ja Park

In-Soon Nam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qualitative nature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perception of elderly parents care. In addition, this research exams the quant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enerations in term of their elderly parents care self-efficacy and attitude towards caring for their elderly parents. Further, an examination of the parental influence upon their children's elderly parents care self-efficacy and attitude towards caring for their elderly parents. There were 2,460 participants in this study, with 820 adolescents, and 820 fathers and 820 mot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of "the most difficult aspect of caring for elderly parents", the most representative response for adolescents was *financial difficulties*, while for parents *differences in opinions*. When it came to "the best aspect of caring for elderly parents" the most representative response for adolescents was *harmonious family*, while for parents *good for children's upbringing*. When it came to "actual acts (behavior) of elderly parents care" the most representative response for adolescents was *living together with their elderly parents*, while for parents *looking after their elderly parents*. When it came to "the best method of caring for their elderly parents" the most representative response for both adolescents and parents was *providing a peace-of-mind for their elderly parents*, followed by the second most frequent response of adolescents *living together with their elderly parents*, and for parents *talking with their elderly parents*. When it came to "how one feels when not caring for their elderly parents" the most representative response for both groups was *a feeling of indebtedness*. Second, for the quantitative analyse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enerations, the parents showed a lower level of elderly parents care self-efficacy and a higher level of negative attitude towards caring for their elderly parents, when compared to the adolescents. Third, for the parental influence upon the adolescents' elderly parents care self-efficacy and attitude towards caring for their elderly parents, the only significant influence found was the mothers' elderly parents care self-efficacy.

Key words : Perception of elderly parents care, elderly parents care self-efficacy, attitude towards caring for elderly parents, generational differences, indigenous psychology